

공인중개사 무료 교육생 모집

인천부동산교육원에서는 이번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공인중개사 전 과정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신청대상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하며 10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교육기간

2004년 12월 1일 ~ 2005년 1월 29일(2개월)

교육시간

A반 (10시~13시)
B반 (14시 30분~17시 30분)
C반 (19시~22시)

준비물

사진1매, 등본1통, 접수비 35,000원, 교재비 별도

부동산 경매 교육생 모집 (12월 1일 개강)

- 경매절차실무(2주)
- 경매권리분석실무(2주)
- 투자분석(1주)

※일반적으로 경매교육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삽입하고 고가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교육은 경매 참가자가 알아야 할 꼭 필요한 교육과정만을 알차게 교육하며, 초보 경매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도 18만원에 6주코스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과정 (12월 1일 개강)

중개업창업실무과정 (5주)	수, 목	20만원
부동산 풍수지리과정 (4주)	금, 토	15만원
부동산 마케팅과 실무 (4주)	수, 목	20만원
부동산 컨설턴트고급과정 (8주)	금, 토	35만원
부동산 양도세 실무과정 (4주)	월, 화	20만원
부동산 디지털 카메라과정 (4주)	월, 화, 수	20만원
부동산 법무실무과정 (4주)	금, 토	20만원

교수진

생산성본부교수진

- 부동산 마케팅과 실무,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중개업협회교수진

- 경매, 중개업창업실무, 풍수지리

본원교수진

- 부동산양도세실무, 부동산법무실무, 부동산디카

인천부동산교육원

032) 435-9908

(간석오거리역 1번 출구앞)

당신도 부동산의 전문가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4 | 11

뜯다... 송도 웰 카운티
끌리면 오라, 영종·용유 투어
담장없애기 어디까지 왔나
우리시 대체에너지 현장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청소년웹진 MOO 학생기자 모집 제5기

2004.10.20~11.20 30일간

» 인터넷 접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청소년웹진 MOO(moo.incheon.go.kr) 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신청자격

- | 공통사항 | • 인천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 가점사항 | •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 타 웹진 학생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생
- 온라인 상에서 카페 운영자 및 개인홈페이지 운영 학생
- MOO 사이트 각종 이벤트 및 게시판 참여도가 높은 학생
- 글짓기, 컴퓨터, 요리, 영화, 게임, 미술 등 특기 학생

학생기자 활동시 특전 부여

- 시 주최 행사,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단체 행사 개최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 기자활동에 소요되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 (월 50,000원)
- 시장 표창 및 경력증명서 발급



- 04 지상전시 | 제1회 인천 물사랑 사진공모전
- 06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영종·용유도 한나절 투어
- 10 우리고장 에듀테인먼트 @ | 송도천문대
- 12 조명 | 담장없애기 어디만큼 왔나
- 16 in. Stage | 오페라 <투란도트> 외
- 20 굿인천 굿뉴스 | 자랑스런 인천시민 선정 외
- 25 의정소식 |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 및 예결특위 구성 외
- 26 에너지 절약의 달 | 대체에너지 현장을 가다
- 29 민족의 성지 강화, 태권도 공원의 최적지
- 30 정보뱅크 | 인천소재 아동심리치료 시설
- 34 과거로의 시간여행 | '여행의 맛' 듬뿍 실은 홍익회 수레
- 35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콩마을·푸주옥
- 36 함께 나누는 세상 | 제과점협회 남동구지부
- 38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 원인재(原仁齋·시 문화재 자료 제5호)
- 42 내집마련정보 | 도시개발공사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
- 44 동서남북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45 Youthzine | 인터넷 얼짱카페 운영자 이경미양
- 46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열한번째 사람 | 황태음씨
- 50 Healthy life | 건조한 가을, 촉촉한 눈 지키기
- 51 독자마당 | 이달의 테마 '가을여행'
- 56 Info Box | 인천시 문화상 선정 외
- 59 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 | 이종구 <산곡동·도화동의 봄>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11 (통권 131호)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11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지영일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붉은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한 성공회 강화성당 돌담길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지역의 물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을 공모하는 <제1회 인천 물사랑 사진공모전>을 열었다. 이 공모전은 동양제철화학(주), CJ(주), INI스틸(주), (주)알로에마임 그리고 인천일보 등 뜻을 같이하는 기업·언론과 함께 지역사회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돼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00여편(일반부 400여편, 학생부 300여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예상보다 수작이 많았다는 평이며 지역의 특수성과 물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을 보다 잘 표현한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우수작품들은 인천시청(10월 19일~10월 21일)을 시작으로 인천대공원(10월 23일~10월 24일)에 전시되었으며 12월까지 지하철역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각각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학생부 대상 정하진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보고 존재가치를 느끼게 하는 작품. 모든 사물의 가치기준을 설정해 주는 시사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일반부 대상 박영권

〈살아 숨쉬는 장수천과 탐사대원들〉

맑은 하천의 하늘 그림자와 인물의 배치가 절묘하게 이루어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는 작품. 인천의 하천에서 이런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제와 잘 부합되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일반부 금상 김상섭 〈여름날의 소경〉



일반부 금상 김영오
〈자연의 미〉

학생부 금상 강준수 〈공촌천의 희망〉



학생부 금상 김성진
〈돌아온 철새〉



바다, 산 그리고 공항... 끝리면 오라

삼 쌍둥이 같이 한 몸이 된 영종도와 용유도.

한나절 섬 여행은 갯내음 물씬 나는 바다 둘러보기, 늦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산 오르기

그리고 거대한 하이테크 명품의 집합체인 인천국제공항터미널 즐기기 등

다양한 테마로 엮을 수 있다.

다리가 놓여있지만 섬 여행은 배로 건너야 제 맛이 난다. 갈매기의 호위를 받은 배는 월미도, 영종도, 그리고 작약도에 갇혀 있는 호수 같은 바다를 느릿하게 가른다. 바다에서 보는 하늘은 유난히 더 푸르다. 늦가을의 바다는 하늘보다도 색이 더 짙다. 섬 일주는 선착장에 내려 남쪽 바닷가를 돌아 북쪽 해변을 훑고 다리를 건너 육지로 빠져나가는 코스로 정했다. 예전에 ‘구읍나루터’라고 불리던 선착장에 내리면 싱싱함을 느낀다. 선착장 바로 옆에 조그만 어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광어, 우럭, 도다리 등 인천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들이 커다란 고무함지 안에서 펄떡거린다. 펄펄뛰는 생선에서 한나절 기행의 기운을 얻은 후 산으로 향했다. 영종도 중심에 떡 버티고 있는 백운산의 중턱에는 천년고찰 용궁사가 자리 잡고 있다. 사찰로 오르는 길은 늦가을을 흠뻑 느끼고 싶은 ‘사색파’에게 적합한 한가로운 오솔길이다. 백운산 정상에 오르면 공항, 섬, 바다 등 영종도의 모든 것이 발 아래 놓인다. 산에서 내려와,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나가 가을바람에 하늘거리는 억새의 사열을 받으며 공항남로로 접어들었다. 방조제 길을 타기 전에 왼쪽 길로 접어들면 막다른 곳 야트막한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보인다. 세계여행문화원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일주여행 선구자인 고(故) 김찬삼 교수의 기념관이다. 김 교수의 여행 관련 사진집, 도서 등도 볼만 하지만 이곳에서 바라 본 인천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 햇살 가득한 마당에 서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만석부두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본격적인 영종도 여행을 목욕재계로 시작했다. 공항남로 중간에는 영종도에서 인천국제공항 만큼이나 유명해진 해수온천탕 ‘해수피아’가 있다. 심해 800m 천연 암반해수를 사용하는 해수피아 노천탕의 열기를 시원한 바닷바람이 식혀 준다. 무의도로 건너갈 수 있는 거잠포를 지나쳐 오성산에 있는 공항전망대로 향했다. 길가에는 ‘오성산 절토공사 반대’ 플래카드들이 줄지어 걸려 있다. 오성산은 이미 반이 잘려나갔다. ‘그러면 공항전망대의 운명은...’ 하는 불안감이 스쳐왔다. 아니나 다를까. 전망대 입구에는 지난 9월 15일부터 운영을 중지한다는 안내표지가 걸려 있었다.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공항전망대는 관제탑, 여객터미널, 활주로 등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시설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트였다. 전망대 아래 주차장에서 눈높이에 맞게 공항정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마시란해변, 용유해변을 거쳐 을왕리로 향했다. 중간에 ‘선녀바위’ 표지판에 이끌려 해변도로로 접어들었다. 선녀바위해변은 용유도의 숨어 있는 보물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철지난 바닷가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적한 곳이다. 여기서는 모래사장도, 파도도, 그리고 바위도 선녀처럼 다소곳하고 예쁘다. 을왕리 바다는 이제 성수기가 따로 없다. 영종대교가 생긴 후 수도권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다가 된 을왕리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려든다. 지난 여름 수많은 사람들의 땀을 씻어주었을 그 바닷물. 오늘도 포말을 만들며 해변을 걷는 사람들의 발을 간질인다. 고개 하나 너머의 왕산해수욕장은 을왕리와는 전혀 딴판이다. 해변을 걷는 두어 쌍 연인들의 실루엣만이 늦은 오후 햇살에 반사될 뿐이다. 왕산해수욕장의 노을은 용유팔경에 들만큼 아름답다. 공항북로에 접어들었다. 거칠 것 없이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이다. 달리기 전에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 있다. 북측방조제 갑문공원. 숲 속에는 바닷가를 바라볼 수 있는 벤치 등이 설치돼 있고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열려 있다. 망둥이를 낚는 강태공들이 석축에 덕지덕지 앉아 ‘세월’을 낚는다. 강화도와 장봉도가 뉘싯대에 걸릴 만큼 바로 코 앞에 있다. 붉은 해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바다 품으로 서서히 들어간다. 바다는 해를 품고 잠을 청하고, 섬은 밤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 공항 활주로는 케이크 쏫불 같은 불을 밝히고 공항도시는 불야성을 이룬다. 이방인은 서둘러 오색등이 켜진 영종대교를 통해 섬을 빠져 나왔다.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성환



- 가는 길 _
- ① 승용차는 영종대교를 건너거나 월미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섬에 닿을 수 있다. (운전자 포함 6,500원 / 1인당 1,500원 추가)
 - ② 좌석버스(111번, 301번, 306번)나 시티투어버스(공항코스)가 나그네를 섬까지 실어다 준다.

선녀바위해변

마시란해변과 을왕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작은 해변. 선녀처럼 생긴 바위가 하나 솟아있는 예쁜 바닷가이다.



방문객이 찾는 명소이다.

을왕해수욕장

일찌감치 국민휴양관광지로 지정된 바닷가답게 주변에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곳이다. 초승달처럼 반원을 이룬 1.5km의 백사장은 사시사철

북측방조제 갑문공원



갑문을 조성하면서 만든 방조제 위의 작은 숲. 군 경계용 펜스가 바다를 막고 있는데 낮 시간 동안에는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개방된다.

백운산과 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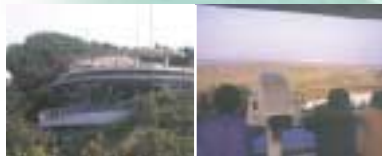


백운산은 해발 256m의 높이로 영종도에서 가장 높은 산. 산 중턱에 있는 용공사는 신라의 명승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한때 흥선대원군이 몸을 숨겼던 곳이기도 하다. 사찰을 오르는 오솔길이 환상적이다. (용공사 746-1361)

백운산은 해발 256m의 높이로 영종도에서 가장 높은 산. 산 중턱에 있는 용공사는 신라의 명승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한때 흥선대원군이 몸을 숨겼던 곳이기도 하다. 사찰을 오르는 오솔길이 환상적이다. (용공사 746-1361)

무의도

공항전망대



관제탑, 여객터미널, 활주로 등 인천국제공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지. 공항 2단계 개발 관계로 오성산을 잘라내고 있어 지난 9월 15일부터 운영을 중지했다. 아직은 전망대 아래 주차장에서 공항을 내려다 볼 수 있다.

하얏트리젠시 인천



인천국제공항 내 업무단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고급 호텔. 총 525개의 객실과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스파, 실내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745-1234)

해수피아



천연 암반해수 온천수를 사용하는 해수온천탕. 영종도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다시피 할 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으로 노천온천탕을 비롯해 다시마탕, 옥사우나 등 효능별 탕을 갖추고 있다. (752-6000)

세계여행문화원

세계일주 여행가 고(故) 김찬삼 교수의 여행 관련 사진집, 도서 등을 전시한 기념관. 아직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아 정식으로 오픈하진 않았다. (746-0802)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재미있고 즐겁게 과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현장. 1층 꿈돌이관, 2층 자연사탐구관, 3층 기초과학체험관 그리고 4층 미래과학관까지 총 112개 주제 170개 종목의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다. (880-0754)

영종선착장(구읍나루터) 어시장



영종도 입구,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어시장. 광어, 우럭, 도다리 등 싱싱한 생선들을 파는데 즉석에서 회를 떠서 근처 횡집에서 먹을 수 있다.

영종대교기념관



영종대교 건설에 사용한 실물자재와 세계 유명 교량모형 등이 전시돼 있는 국내 최초의 교량과학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영종대교와 인천 앞바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공항쪽으로 들어갈때만 기념관으로 진입할 수 있다. (560-6400)

건너 뚫 수 없는 관광코스 공항여객터미널



인천공항여객터미널은 단일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건축물이다. 기하학적으로 생긴 외형을 보는 것만으로도 손색없는 '구경거리'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물론 터미널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없다. 이곳저곳 기웃거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 운 좋으면 수준 높은 예술 공연도 볼 수 있고 우연히 인기 스타와도 맞닥뜨리는 행운도 얻을 수 있다. 세련되고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수경정원 벤치에 앉아 오고가는 여행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눈요기이다.

1층 서편 만남의 장소 내에 있는 홍보전시관(741-4730)에 들르면 공항건설 과정과 시설 현황이 설명돼 있는 홍보판들이 붙어 있고 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무인안내기가 설치돼 있다. 공항캐릭터를 응용해서 만든 갖가지 상품들을 판매하는 공항기념품점도 함께 있다.

2층 입국장 동·서측 두 곳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다. 고구려의 현무도, 백제 금동대향로, 신라의 기마인물형토기 그리고 천마총 금관 등 국보급 유물을 정밀하게 복제한 전시품이 전시돼 있다. 또한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3시 30분경에는 1층 밀레니엄홀에서 퓨전피아노 연주, 플라멩고 기타 등의 이색적인 공연이 열린다.

여객터미널 즐기기의 '강추'는 전망라운지에서 식사하기. 4층에 자리 잡은 파노라마 라운지(743-6789)는 활주로를 향해 탁 트인 통유리로 단장된 레스토랑이다. 스낵류의 가벼운 식사부터 동서양을 혼합한 퓨전메뉴까지 맛볼 수 있는데 가격은 일반 시내 레스토랑 수준이다. 관제탑과 활주로, 그리고 이착륙을 준비하는 수많은 비행기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색다른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다.

이밖에 터미널의 이색장소로는 유아휴게실과 어린이 놀이방(3층), 기도실(4층), 인터넷 라운지(3층), 휴대폰 무료충전소(3층), 남성전용사우나(지하 1층) 등이 있다.

문의 _ 1577-2600, 741-0114 / www.airport.or.kr

‘별 볼일 있는’ 바닷가 학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10월의 어느날. 바닷가의 찬바람은 한겨울 추위를 무색케 한다. 그런데도 송도 유원지에서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끊이지 않는다. 두꺼운 겨울 파카를 꺼내 입은 아이, 옷깃을 잔뜩 올린 아저씨, 팔짱을 끼고 동동거리는 아줌마. 제각각의 포즈를 하고 있지만 모두들 고개를 잔뜩 뒤로 꺾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무슨 일일까?

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별을 동경하는 마음과 무한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껴보았을 터. 별을 관찰하고 우주를 공부할 수 있는 송도천문대가 송도유원지 안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참나무와 도토리(대표 양인목)’가 커다란 두 개의 돔 안에 천체망원경을 갖춰 놓고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을 연 것이다. 송도천문대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무료 별잔치를 벌였다.

‘별 하나 나 하나’ 별밤지기 되어 볼까

이미 사위가 어두워진 송도유원지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에 자리 잡은 매점건물의 2층에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다. 이곳은 참나무와 도토리가 상설로 운영하는 천연염색 체험학습장이다. 이 천연염색 체험학습장이 매주 수요일 밤이면 별자리를 배우고 연구하는 ‘별천지’가 된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별을 보러 온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이 양인목 원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저씨가 문제를 낼 거야. 알타이르, 데네브, 베가... 이 별들이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일까? 1번 항성, 2번 행성, 3번 위성, 4번 소행성”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번쩍 올라간다. 답은 1번 항성.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란단다.



2

이처럼 아이들과 별과 별자리, 우주와 은하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론 교육을 한 후 ‘별탐험대’는 실제 관찰에 나섰다. 먼저 해 볼 것은 맨눈으로 별 찾아보기. 건물을 나선 아이들은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는 모래사장으로 나섰다. 쌀쌀한 바닷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이들은 모래사장에 털퍼덕 주저앉는다. 양인목 원장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데네브, 베가(직녀), 알타이르(견우) 같은 별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세 개의 별을 따라 큰 삼각형을 그려본다.

망원경으로 들여다 본 하늘

맨눈으로 별을 찾아보는 ‘안시관측’을 마친 일행들은 유원지 안쪽에 자리잡은 천문대로 발길을 옮겼다. 이번엔 진짜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자세히 별을 관찰할 차례다. 천문대에는 2개의 돔에 200mm, 150mm 굴절망원경이 갖춰져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보조망원경도 3대나 설치 돼 있다. 5개조로 나뉜 ‘별탐험대’는 아빠들, 엄마들, 어린이들 순서에 따라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고 별을 관측했다.

엄마랑 동생 친구들이랑 같이 왔다는 인엽(연성초 4)이가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자 양인목 원장이 별이 보이느냐고 묻는다. 무슨 모양이냐니까 동그란 모양이란단다. “그래서 구상성단이야” 하며 자세히 설명해 준다. 세 대의 천체망원경을 차례로 둘러본 아이들은 어느새 ‘별박사’가 되었다. 친구 따라 별을 보러 서울에서 왔다는 김은영(송파구 거여동·34)씨는 “서울에선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가보질 못했다”며 “보고 싶었던 별을 실컷 봐서 좋다”고 미소를 짓는다.

별 관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어느덧 시계 바늘은 10시를 향하고 있는데 돔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는 엄마와 아이의 실랑이가 한창이다. “별 한 번만 더 보고 가자”는 조호영(용인초 3)군의 성화에 엄마 정진희(남구 용현동·34)씨는 “다음 주에 다시 오자, 엄마가 꼭 약속할게”라며 협상(?)을 한다. 오늘 아이들이 눈으로 본 것은 하늘의 별이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가슴 속엔 꿈으로, 머리 속엔 상상력으로 오래도록 자리 잡을 것이다.

송도천문대의 무료 별잔치는 9월과 10월에 매주 운영됐고 11월은 미정이다. 송도천문대는 이동천문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30인 이상의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송도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이동천문대를 이용해 원하는 장소에서 별을 관찰할 수도 있다.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1·5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는 ‘별탐험대’ 2 송도천문대 원형 돔 3·6 별과 우주에 대해 설명하는 양인목원장 4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는 정진희씨와 아이들

참나무와 도토리 체험학습

‘참나무와 도토리’에서는 살아있는 교육, 세상이 모두 학교인 교육을 위해 주제에 따라 수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학습은 송도유원지 안에 100여명의 천연염색장, 송도천문대, 아암도 주말농장을 기틀로 주말학교, 현장체험학습, 천연염색 학습, 송도천문대, 염전, 철새학습장 등에서 이뤄진다. 지난 10월 2일 주말자연학교를 열고 첫 수업으로 소래생태공원내 염전과 갯벌, 철새 등을 체험했고, 농사체험으로 벼 베기, 고구마 캐기 등이 진행됐다. 또 11월에는 시장체험 5일장 기행,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철새관찰 항구체험, 예절배우기 다도체험 등이 열릴 예정이다. 체험학습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연간회원(가입비 5만원)이 되면 매주 체계적인 별자리 학습을 할 수 있고 주말학교는 20% 할인된다. 문의 _ 참나무와 도토리, 송도천문대 (www.chamnamu.com 832-8032, 011-895-4279)

1

담장 허물어낸 자리 웃음 꽃 가득

폐쇄와 단절의 상징이던 담벼락을 없애자는 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요즘처럼 ‘마인드를 바꾸자’ ‘열린 생각과 마음을 갖자’는 말이 구호처럼 회자되는 시절에

나부터, 작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담장없애기.

처음 가졌던 우려는 그저 기우일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바라보는 눈길조차 시원스럽고 마음은 절로 넉넉해진다.



담장은 폐쇄와 경계의 상징으로 대표된다. 구역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고립과 단절, 불관용의 완고함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시는 인천을 푸르게, 마음을 푸르게 하는 차원에서 담장없애기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 지역 시민사회 단체, 일반시민 등이 마음을 한데 모은 것은 물론이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인천에서 담장을 없앤 자리에 나무를 심고 꽃도 심는다면 생활권 단위에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동시에 이웃과의 거리도 좁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는 등 그야말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올해만도 상반기에만 5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8곳의 담장을 헐어냈다. 12곳에 6천여만원을 투입해 더 많은 담장을 없애는 것이 하반기 계획. 관공서의 경우 공공사업 차원에서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고 개인(공동)주택, 종교시설, 기업체 등은 인천담장없애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통해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올해 1억2천만원의 시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의 경우 대폭 확대된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시의 담장없애기 운동은 시와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2년여 동안 활기차게 추진돼 왔다. 운동본부 이한구 단장은 “올 하반기의 경우 기존 성과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막상 없애고 나니 보기 좋고, 이웃과의 사이도 좋아져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 같다. 동사무소를 통해 내년도 예비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120여건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봄 담장을 없앤 부평구 일신교회에 이웃한 주택과 기업체 등 주변 4곳에서 담장없애기를 신청했고 작년말 공사를 한 최성용씨택의 이웃집 3곳도 함께 담장을 없애기로 결의해 담장없애기 유행을 실감케 했다.

이들은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담장만 없앤 후 내집 정원 가꾸기식의 녹지화보다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웃과의 소통, 교류 활성화를 일궈내야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아울러 향후에는 건축단계에서 담 없는 건축물로 설계되고 이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건축주, 건축사협회 등 관련 주체간의 의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시민 반응과 사업 확산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 내년에는 더욱 대대적으로 담장허물기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아쉬운 점은 병원, 기업, 아파트 등 규모가 큰 민간시설의 경우 총공사비 대비 자부담율이 높아 아직 담장없애기 운동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고 있지 못하는 현실. 하지만 올해 최대 750만원이던 지원액이 내년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해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참고로 담장없애기 예산지원은 철거될 담장의 길이와 조경면적 등에 따라 총액이 결정되고 그 가운데 일정 비율로 시예산이 지원된다.



1 남구 남인천여자중학교 녹화 2 일신교회

부평구 부평5동 최성용씨 덕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요. 호기심에 물어보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잠시 쉬었다 가고 사진 촬영도 하는 등 동네 공원 처럼 되어 버렸어요”

안주인 오세의씨의 애교섞인 푸념이다. 담장을 없애기로 마음 먹으며 사생활 침해라든가, 도둑 등 범죄노출을 우려했지만 기우에 그치고 결과에 대만족한 그다.

이웃한 단독주택 3가구도 오세의씨의 사례를 보고 가뜩이나 답답한 골목을 가로막고 선 담장을 허물기로 합의했다.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라는 말과는 달리 서로의 등을 떼어 놓는 담을 쌓고 살다보니 ‘사람 사는 것이 이게 아닌데’ 싶었던 것이다. 골목길은 차량으로 메워지고 집과 집 사이를 비집고 우뚝 솟은 담장은 가뜩이나 삭막한 도시를 더욱 살벌하게 만든다.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건물만 뽕뽕하고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이 우리 도시의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간에 좋게 해결할 일도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잦아지고 아이들조차도 쉬 심성이 메마르는 것은 예사.

스스로 담장없애기 홍보요원이라고 자처하는 오씨는 새로운 도시문화와 사람 사는 맛을 불어넣어줄 처방으로 담장부터 없앨 것을 적극 권한다.



before



after

남동구 만수3동 성당



벽돌담 30여m를 없애면서 시로부터 750만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철망펜스 70m는 자체적으로 철거한 후 성당의 모든 담 자리에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었다. 변화는 금방 감지되었다. 아이들이 들어와 농구를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광경이 종종 목격되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가족들이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성당 마당에 발을 들여 놓곤 했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가 부족한 만수3동 일대는 우리시에서 몇 남지 않은 달동네 가운데 하나. 그 한가운데 만수3동 성당이 있다.



before



after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담장을 없앤 덕에 동네 소공원 하나가 만들어 진 셈.

민영환 본당신부는 “본당 신자들에게 성당에 자주 놀러와 바람도 쐬고 쉬었다 가라고 홍보했는데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서 “신자들이나 동네 사람들 모두 ‘시원해서 좋다’라고 입을 모은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담장만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주차장 개방, 열린 화장실 운영, 식수 등의 부가 서비스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중 이용시설이다 보니 다소의 부작용도 있다. 식물 식재시 수종 선택이나 관리가 어렵고 사람들이 여기 저기로 들락거려 꽃과 나무들의 시련이 계속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차량 관리, 낯선 사람들이 성당 여기 저기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더럽히는 등의 관리 부담이 늘었다.

“공공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조정 관리와 출입자 통제가 담장 없앤 후의 어려움일 것”이라는 민신부는 “하지만 우리 지역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 각박한 세상살이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담장 없애기는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밝혔다.

글_지영일 · 사진_김정식

인천을 푸르게 마음을 푸르게

우리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최우선사업으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선정하여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며 희망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발굴해 시상할 계획도 갖고 있다.

사업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담장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는 전액 상계지원하며 단독주택 조경사업비는 최대 500만원, 다중성건물 조경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조경사업비 가운데 기준 설계비의 30%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동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732~3)



오페라 투란도트

인천오페라단은 러시아 국립 타타르스탄 오케스트라 45명, 합창단 70명, 김명주 무용단 20명, 연기자 및 엑스트라 10명, 연출을 비롯한 스태프 27명 등 총인원 155명이 만든 초대형 오페라 <투란도트>를 무대에 올린다. 오페라 <투란도트>는 18세기 베니스의 극작가 카를로 고치가 쓴 10편의 ‘극적 우화들’ 중 <Turadotte>를 푸치니가 오페라화 한 작품이다.

일시 _ 11월 4일(목)~7일(일) / 4일, 6일(오후 3시, 7시 30분) / 5일, 7일(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B석 30,000원 C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_ 인천음악문화원 (429-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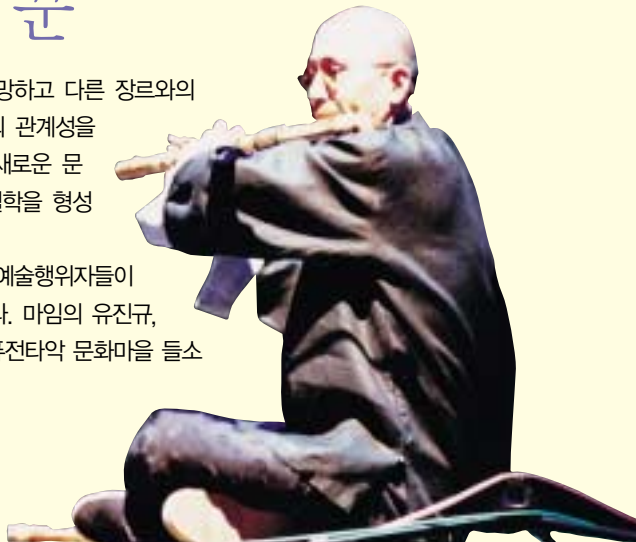


2004 아름다운 무대 켄

21세기의 다변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움을 갈망하고 다른 장르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를 깨닫고 상호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험한다. 관객은 예술행위를 봄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충격과 신선함을 통해 새로운 시각 그리고 사고의 철학을 형성하는 계기를 얻는다.

‘2004 아름다운 무대’는 마음이 아름답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행위자들이 모이는 무대이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아름다운 시민들이 찾는 무대이다. 마임의 유진규, 행위예술 신종택, 소리꾼 권재은, 민족음악 석자연 스님, 가야금 김혜원, 부토 서승하, 퓨전타악 문화마을 들소리, 재즈전위예술 한정원 등 아름다운 ‘켄’들이 무대에 선다.

일시 _ 11월 12일(금) 오후 7시
티켓 _ 3,000원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문의 _ 505-5995



팝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오페라 갈라 & 드라마 OST 콘서트

인천유일의 여성팝스오케스트라는 인천 지역사회 초등학교생들을 위해 교과서 음악여행 등의 공연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연주단이다. 여덟 번째 정기공연인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배우 이해경(오페라의 유령), 테너 진용국과 협연한다. 오페라 카르멘 서곡(비제),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이루고(푸치니) 등 클래식뿐만 아니라 ‘나 가거든’(명성황후), ‘my memory’(가을연가), ‘기도’(가을동화) 등 낯익은 드라마 주제곡도 들려준다.

일시 _ 11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인천여성문화회관 (511-3141)



이루마와 함께하는 Farewell 2004

‘연인들의 동화...그 사랑의 연가’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드라마 OST와 이루마의 음악감성이 물씬 풍기는 청아한 피아노 선율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인들을 겨냥한 공연이 될 것이며, 평소 Classic한 공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체험의 장을 열어 주기 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일시 _ 11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티켓 _ R석 55,000원 S석 44,000원 A석 33,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하늘기획 (322-9678)

가족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의 초록별 대모험



이 작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러 용감하게 떠나는 친구들의 모험담이다. 어린이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극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극적 재미와 교훈적인 내용, 무한한 상상력의 발아와 함께 다양한 틀을 제공하는 가족뮤지컬이다. 단순히 구경하는 차원의 공연이 아닌 게임과 다양한 놀이 등으로 극적 재미와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특히 노래와 춤, 그리고 모험이 가득한 세계에서 아이들은 힘을 얻는다.

일시 _ 11월 20일~21일 / 20일(토) 13:00, 15:30, 17:30 /21일(일) 11:00, 14:00, 16:30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0,000원 S석 25,000원
문의 _ 창라이프 (433-6070)

가족뮤지컬

콩쥐팍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콩쥐팍쥐’를 뮤지컬화 한 작품이다. 팍쥐와 팍쥐 엄마는 콩쥐에게 하루종일 해도 다 할 수 없는 만큼의 일을 시킨다. 그래도 부지런한 콩쥐가 다 해내자 이번에는 나무 호미로 돌밭을 매라고 하고 밭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한다. 그러자 콩쥐는 황소와 두꺼비의 도움을 받아 거뜬하게 일을 해치운다. 어느 날 왕자님이 신부감을 뽑기 위하여 잔치를 여는데...

일시 _ 11월 26일(금) 오전 10시 20분, 11시 30분 / 27일(토) 오후 1시, 2시 20분, 3시 40분
장소 _ 서구문화회관
티켓 _ 일반 10,000원 할인 5,000원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입장)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부평문화사랑방 11월 공연

올 1월 개관이후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듬뿍 주고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은 11월에도 탭댄스, 합창단, 행위예술, 퓨전국악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예매 및 문의 _ 부평문화사랑방 505-5995



공연일시	공연명	공연내용	입장료
11. 5(금) 19:00	찾아가는 문화활동 『즐거운 무대』	탭쿤(탭댄스), 재즈댄스, 스포츠댄스	무료 선착순 입장
11. 9(화) 19:00	인천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인천시립합창단	무료 선착순 입장
11. 12(금) 19:00	2004 아름다운 무대 『쑤』	유진규, 신종택, 권재은, 들소리 외	전석 3,000원
11. 26(금) 14:00, 16:00	청소년 음악회	퓨전국악그룹 “The林(그림)”	전석 3,000원

※공연내용은 공연장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

신데렐라의 뜻이 '재투성' 이듯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부각시킨 가족뮤지컬이다.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도 언제나 밝고 명량한 모습의 신데렐라를 보여준다. 무대를 전면 세트화시켜 입체감 있는 공연을 선보이며 극 중간에 마술을 보여주어 관객이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한다.

일시 _ 11월 27일(토)~28일(일) 오후 1시, 3시,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문의 _ 플러스기획(02-972-4212)



박명진교수와함께하는

하품영화제

한 달에 한 번, 영화평론가 박명진 교수를 모시고 좋은 영화 한 편을 쉽고 재미나게 감상했던 하품학교가 아홉 번의 하품학교에서 익힌 신선한 호흡으로 새롭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영화제를 연다. 학산소극장(남구 용현동 소재)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들이 상영된다.

- 11월 26일(금) 18:30 개식
19:00 영화감상 :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 <2002> 커트 워머 감독
- 11월 27일(토) 16:00 영화감상 : ‘지구를 지켜라’ <2003> 장준환 감독
18:00 특 강 : 영화평론가 전찬일
19:00 영화감상 : ‘라이방’ <2003> 장현수 감독
- 11월 28일(일) 16:00 영화감상 : ‘아비정전’ <1990> 왕가위 감독
18:00 특 강 : 영화감독 심광진
19:00 영화감상 : ‘불후의 명작’ <2004> 심광진 감독
- 11월 29일(월) 19:00 영화감상 : ‘죽어도 좋아’ <2002> 박진표 감독
- 11월 30일(화) 19:00 영화감상 :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 <2000>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881-3993

Paradise in the City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며 방송음악 전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신일이 ‘Electreecity’ 라는 원맨프로젝트명으로 자연과 문명을 소재로 그려낸 POP INSTRUMENTAL 앨범을 제작했다. Electreecity는 Electric +Tree +City의 합성어로 문명과 자연에 관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피아노 솔로 위주의 뉴에이지 음악이나 재즈가 아닌 ‘Fusion Instrumental’ 앨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연주 음악시장의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평을 받는다. 김신일의 따뜻한 기타연주가 돋보이는 Air Supply의 ‘All Out of Love’, 퓨전 재즈그룹 Wave의 김용수가 색소폰 세션으로 참여한 ‘다른 곳, 같은 그리움’ 등이 수록되었다.

문의 _ 011-9770-294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18 ● 굿모닝인천

※ 공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굿인cheon 굿뉴스

굴현역 전동차 운행횟수 증편

인천지하철의 북쪽 종점인 굴현역의 전동차 운행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인천지하철공사는 계양지역과 경기도 김포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이 지역 인근에 있는 굴현역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박촌역까지 운행했던 전동차를 굴현역까지 연장해 평일 169회이던 굴현역 운행 횟수를 275회로 늘렸다. 휴일도 143회에서 227회로 증편했다. 이에 따라 운행간격이 15~16분에서 8~9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대엔 8~10분에서 6~7분으로 짧아졌다. 다만, 첫차와 막차 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전 5시 34분과 다음날 오전 0시 30분으로 같다. 또 남쪽 신원수역의 첫차는 종전 오전 5시 35분에서 5시 30분으로 당겨지며, 막차는 지금과 같이 다음날 오전 0시 25분이다.

문의 _ 인천지하철공사 (451-2273)

꿈과 미래를 위한 만남의 장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인근에 청소년들의 초록빛 꿈과 미래를 펼쳐갈 전용공간이 들어섰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허단)이 지난달 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대지면적 3,716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

리트조 건물로서 건축면적이 7,220평이며, 사업비는 총 264억이 투자되었다. 이번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개관으로 학생들을 위한 음악회, 전시회 등이 열리며, 10월부터 12월까지 연인원 4만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월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도서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각종 영상, 음향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마련된 학생문화회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이 다채롭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과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760-3402)

유망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우리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자금의 일반업체 대출금리를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의 인하에 맞춰 현행 연리 4.58%에서 3.89%로 0.69%p 인하하고,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4%에서 0.5%p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3.5%로 결정했다. 인하된 금리의 적용대상은 1996년 이후 우리시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업체와 2004년 10월 1일 이후 대출받을 업체이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시설구입자금, 정보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기업육성자금, 공장구입자금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시의 이번 조치로 관내 중소기업은 금융비용부담이 연간 7억7천4백만원 감

소하고,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의 자동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 (440-2894)

전국체전서 종합순위 8위 기록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우리시가 금 42, 은 58, 동 61개를 얻어 지난해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 7위에 1단계 부족한 결과이지만 상당한 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시는 시세가 비슷한 전국광역시 가운데 서울(2위)을 제외한 부산(13위)과 대구(9위) 등을 모두 앞지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 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에서 7개의 대회 신기록과 타이 기록을 쏟아냈으며, 고등부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쳐 내년 체전의 전망을 밝게 했다. 여자 일반부 수영 평영 100m와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한 구효진(인하대)은 지난해 자신의 종전 기록을 모두 앞당겼으며, 여자 일반부 육상 400m 계주에서도 인천 선발(김하나·김남미·김은주·박경진)이 종전 기록을 갱신하며 대회 2연패를 이었다. 그리고 고등부가 전체 42개의 금메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개의 금메달을

휩쓸어 대학부와 일반부 선배들을 쭉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체조와 탁구에서 2개의 금메달을 차지해 예년 종목별 종합순위를 무려 5~6단계나 꺾충 뛰어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올 3월에 팀을 창단한 수구(인천선발)팀도 지난해 우승팀 전북선발을 8점차로 꺾고 정상을 차지, 이번 대회 최고의 이변으로 주목받았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 (427-2503)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활용 의무화

우리시는 지난달 4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단체(에너지시민연대)와 힘을 합쳐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과 자발적 협약의 체결(VA), ESCO사업을 통한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추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자체적인 에너지절약에 역점을 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공공건물 신축시(증·

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구입, 공공기관의 적정 난방온도는 18~20도, 냉방온도는 26~28도로 준수할 것, 관용차량의 부제 실시,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자율참여 제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토록 했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83)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개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지난 10월 6일 개점했다. 우리시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이 카페는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체험토록 하여 일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카페는 남구 주안2동 194-6 인천명품관

(구 공무원연급매장) 1층에 25평 규모로 설치, 장애인들이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료 및 다과를 판매한다. 이번 카페 개점은 올해 3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군·구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업이며,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개발,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64)

한국이민사박물관 건립



100년 전 제물포항(인천항의 당시 이름)을 통해 전 세계로 향했던 한국 이민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한국 이민사 박물관'을 인천항에서 가까운 중

자랑스런 인천시민 선정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모범시민에게 영예의 인천시민상이 주어졌다. '제40회 시민의 날'을 맞아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된 23명의 후보자 가운데 10명을 최종 선정, 지난 10월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각각 다음과 같다. 사회공익상부문 새마을분야 조영하(중구, 여, 60세. 중구새마을부녀회장), 봉사분야 고일상(동구, 남, 50세. 송림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공익분야 김인철(남구, 남, 60세. 인천여자고등학교장), 국제교류분야 고상순(서구, 남, 57세. 벽제도에연구소 대표), 기타 특별분야 김숙자(서구, 여, 63세. 서구 여성단체협의회 고문), 정운옥(부평구, 남, 58세. 부평5동 주민자치회 고문) 등 2명. 효행상 부문 김복순(계양구, 여, 52세. 계산2동 896-1, 주부), 이형순(남구, 여, 65세. 주안4동 256-30, 주부) 등 2명. 산업발전상부문 상공업분야 장형기(남동구, 남, 55세. 제일유리공업(주)대표이사), 농수산분야 이효영(남동구, 남, 44세. 남동배연구회장, 농업인). 시민상은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시민과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시민을 발굴, 영예로운 시민상을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와 함께 공적을 확산 파급시켜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3)

<p>구 북성동 월미공원 내에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3일 현상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 분야 (주)간삼건축(대표:김자호)과 전시 분야 (주)시공테크(대표:박기석)의 공동 응모팀을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했다.</p> <p>2개월 가까운 공모 기간을 거친 이번 사업은 전시 시설을 포함한 전체 건립에 약 7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오는 2006년 말경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000㎡에 지상 3층 연면적 4,000㎡의 건축물과 옥외전시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박물관과 사무실, 공원안내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선안에 따르면 하와이 이민을 주 전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및 중남미 이민에 대해서도 향후 전시공간 확장을 통해 종합적으로 전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p> <p>문의 _ 서부공원사업소 (440-6104)</p>	<p>조 4천780억원을 투입, 2008년도에 착공, 2010년 완공해 2011년에 개통할 예정이다.</p> <p>경량전철(LRT)은 중량(中量)전철(MRT)에 비해 건설비 및 운영비 등이 적게 들고, 소음 및 진동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p> <p>우리시는 2호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법에 의거 인천시를 사업주체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차량 및 시스템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인천사+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경우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이 60%, 시비·민간자본이 각각 20%씩 분담하여 시비 부담과 사업기간을 최소화된다. 건설 후에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계획이나, 향후 민간사업자 결정 및 협약 체결시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p> <p>인천 2호선이 건설되면 서구 검단·검암·경서지구 등 신규개발 지역과 주안·석바위·구월지구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p> <p>문의 _ 도시철도본부 (451-2782)</p>	<p>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p>  <p>우리시는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난 10월 8일 송도신도시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설립, 개소식을 가졌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인천시와 국방품질관리소, 송도테크노파크가 공동운영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활발하게 접목하고 이를 통해 부품국산화 촉진과 민군 겸용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국방벤처센터는 9월 초 국방분야에 진출하고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25개 업체를 선정, 10월 초 입주를 완료했다. 우리시는 인천국방벤처센터의 개소로 최소 연 1천여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송도 테크노파크에 발전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송도 테크노파크단지 내의 생산기술연구원, 생물실용</p>
---	--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노선확정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도로의 노선이 확정됐다. 서인천나들목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인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6.7km 구간에 대해서다. 우리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청라지구 구간을 이미 이 지역에 짓기로 계획돼 있는 일반 도로 2개를 확장해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서인천나들목에서 가정오거리까지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반 도로를 확장해 고속도로로 만들고 가정오거리에서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구간도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 토지이용 계획에 포함, 건설 예정인 도로를 확장한 뒤 두 도로를 연결할 방침이다. 이 구간은 폭 70m 규모의 12차로로 건설되며 기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인천중점 간 10.5km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시는 서인천나들목 인근 가정오거리 일대 28만평에 업무 및 상업지구,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도로개설에 따른 방음대책 강구는 물론 정부와 공동 타당성 조사를 내년 2월까지 마친 후 종합건설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도로과 (432-2804)



화 센터, 인천대 미래관, 인하대 산학협력관 등 첨단 IT, 신소재 산업 등 지식 정보 산업단지와 집적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3432)

재해유형별 행동메뉴얼 ‘종합우수’

소방방재청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맞도록 작성한 재해유형별 ‘행동메뉴얼’을 심사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였다. 이는 각 자치단체에 배부된 ‘재해 표준 행동요령 기본지침’을 토대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해유형별 ‘표준행동메뉴얼’을 작성·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재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표창에서 우리시가 종합우수를 차지했으며, 해당 유공공무원 2명(인천시 송용석, 부평구 정휘창)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문의 _ 시 건설방재과 (440-3755)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가현대기업(대표 채성일)이 제작 설치한 ‘아리아리랑’이 선정됐다. 창작분야는 남구 주안동에 소재한 (주)아르필(대표 강정란)이 제작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게, 아름답게, 조화롭게’를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대상’에서는 대상 2명을 비롯해 모두 58명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 행사는 보기 흉하고 저급한 광고물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내 가로의 좋은 경관과 건전한 광고문화 형성을 위해 개최된 것. 앞으로도 우리시는 이번 공모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응모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상금을 대폭 올려 명실상부한 옥외광고대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 (440-3203)

교통신호등 안전 개선조치

우리시는 도로이용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연말까지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시내 주요교차로의 일반신호등을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한다. LED(Light Emitting Diode)교통신호등은 발광 다이오드소자를 이용하여 일반신호등 전구인 백열등 대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시간당 10~15W가 소모되어 85% 이상의 전력소비가 절감된다. 또 일반신호등인 백열등은 4,000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비해 LED신호등은 수명이 10만시간 이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일반신호등에 비해 난반사가 없어 도로이용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신호등에 별도의 공사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 6천만원, 2003년도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여 문화예술회관4거리 등 4개소와 남동구 길병원4거리, 연수구 동춘동 송기4거리, 남구 주안동 신기4거리 등 22개소의 일반신호등을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한 바 있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65)

인천항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와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남항 매립지내(제1준설토 투기장)에 18,000평 규모의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시설이 오는 2005년 조성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시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공동협약 협약서 체결을 위한 실무작업 중에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리시는 1만평 규모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휴게, 편의시설과 정비소, 주유소 등의 부대시설 조성을 합작회사 또는 민간유치로 조성할 예정이다. 남항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조성되면 인천항 주변의 화물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노숙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45)

2004 인천학생디자인경진대회 성황



우리시가 우수 디자인 인력발굴을 위해 개최한 ‘2004 인천학생디자인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달 14일 인천디자인고등학교에서 개

<p>최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46개(초17, 중 19, 고10)학교에서 초등학생 228명,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210명 등 총 588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기초디자인, 조형디자인, 패션일러스트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웹디자인 등 5개 부문에서 우열을 겨뤘다.</p> <p>대회결과 초등부에서 신대초등학교 유세인군이, 중등부에서 인천여자중학교 임초롱양이, 고등부에서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강지혜양이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총 1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p> <p>초·중·중고등부 각 1명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디자인연수 특전을 주게 되며 가장 많은 입상자를 배출한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나옥진 교사에게는 최우수지도교사상을, 입상자수가 가장 많은 서곶초등학교, 부평여자중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단체상을 선정하는 등 상장과 장학금이 주어졌다.</p> <p>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23)</p>	<p>교통편의 높여줄 교통정보수집체계 강화</p> <p>인천시민의 교통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가 신속한 도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 내 관제장비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p> <p>계획에 의하면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시정체 교차로에 CCTV 카메라 14대, 가변안내전광판(VMS) 2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교통정보수집체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신속 정확한 도로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p> <p>CCTV 카메라 추가 설치 지점은 연수구 웅암4거리, 연수4거리, 외암도4거리, 남동구 장송백이4거리, 남동공단입구4거리, 남동구청4거리, 소구월4거리, 서구 공촌4거리, 경서3거리, 계양구 계산3거리, 계양IC, 임학4거리, 장기4거리, 천대고가4거리이며 가변안내전광판 추가 설치지점은 부평구 벽돌막4거리, 남동구 남동IC입구로 올해말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다.</p> <p>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63)</p>	<p>보험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p> <p>문의 _ 시 국제통상과 (440-2864)</p>
<p>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엠블렘 선정</p> <p></p> <p>인천시민들에 의해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엠블렘, 마스코트, 메달 디자인이 최종 선정됐다.</p> <p>지난 9월 20일부터 29일(10일간)까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가가 개발한 엠블렘, 마스코트, 메달 등 기본디자인 각 4종을 놓고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선정토록 한 결과 각각의 디자인이 선정되었다.</p> <p>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회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대회의 홍보와 이미지 부각코자 했다"고 설명했다.</p> <p>문의 _ 시 조직위원회 (440-8103)</p>	<p>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시행</p> <p>우리시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업무를 돕기 위해 수출보험료와 수출신용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p> <p>수출업체들 가운데 간혹 수출계약 후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시는 만약에 입을 수 있는 이같은 기업 손실에 대해 보험·보증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돕기로 하고 업체당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수출보험료 및 수출신용보증료를 지원한다.</p> <p>지난해 수출실적이 천만불(직접수출분) 이하인 업체가 그 대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422-2713~7)에 협조를 얻어 한국수출</p>	<p>불편 겪은 민원인에 행정서비스 보상</p> <p>우리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거나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 대해 행정서비스 보상제를 실시, 한차원 높은 고객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p> <p>고객중심의 만족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정서비스 보상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각종 문서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 등으로 민원인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등 고객 불편 초래사항에 대해 적용된다.</p> <p>이를 위해 시는 기존에 각 부서별로 보상대상 민원을 파악하여 보상을 실시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시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보상신청란을 개설하고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 보상 여부를 검토 결정하게 된다.</p> <p>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24)</p>

<p>인천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재차 확인하는 우호를 다지기도 했다.</p> <p>우리시는 동북아시아 인천의 잠재역량과 계획을 홍보하고 양도시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p> <p>문의 _ 시 국제통상과 (440-2830)</p>	<p>에는 약 2천본의 각종 국화가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며 굴렁쇠,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례없이마당도 준비되어 있다.</p> <p>버스를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올 경우 46번 종점에서 출발하는 청라도 순환버스 591번을 타면 된다.</p> <p>문의 _ 시 청소행정과 (440-6239)</p>	<p>편하게 상수도 민원업무 보세요</p> <p>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으로 지난 10월부터 민원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객이 행정기관에 접근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일시를 미리 정해 민원처리담당자로 하여금 적절히 민원을 해스코 한다. 따라서 민원인은 평일과 휴일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상수도 분야의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 (http://waterworksh.incheon.kr)를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공무원과 현장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p> <p>• 상담예약전화번호</p> <p>중부수도사업소 : 766-5001 동부수도사업소 : 582-5001 남부수도사업소 : 872-5001 남동수도사업소 : 466-5001 부평수도사업소 : 502-5001 계양수도사업소 : 543-4001 서부수도사업소 : 567-2001 강화수도사업소 : 934-4001</p> <p>문의 _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870-9225)</p>
<p>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에 핀 국화</p> <p></p> <p>혐오시설로만 인식돼 기피 대상인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곳을 가본 시민이라면 말끔한 처리설비와 깨끗한 주변환경에 놀라고 각종 체육시설에 다시 찾게 된다. 우리 시민의 공익시설로 자리잡아가는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이 가을을 맞아 국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p> <p>행사는 11월 7일까지며 청라소각장 온실에서 국화를 만날 수 있다. 전시기간</p>	<p>정보전달 기능강화 웹사이트 보강</p> <p>우리시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시민의 정보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 시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보강한다.</p> <p>주요내용은 2005년까지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전자결재문서공개시스템구축,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이용안내 및 예약시스템구축, 장애인·노인 등 특수계층의 이용자 환경을 고려한 홈페이지 재구성, 무선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SMS 및 폰페이지 구축, 인터넷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솔루션 등이다.</p> <p>웹사이트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공연 예약처리가 가능하고 결재문서 공개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p> <p>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3)</p>	<p>의 정 소 식</p>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 및 예결특위 구성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조례, 기타안건 등 11건을 처리하고 9월 21일 폐회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연어·이주삼·최병덕·홍인식·안병배·박용렬·황창배·이범성·이성옥·김을태·임희정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최병덕 의원을 간사는 추연어·홍인식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연희도시공원해제요구청원 등 2건은 보류하였고, 당하지구조성사업지구외도로개설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의사일정 변경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의건은 조건부원안 승인하였다.

무의탁, 독거노인에 추석맞이 햄살 전달

인천광역시의회 박승숙 의장은 지난 9월 22일 남구 관교동 소재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2004 추석절 효행선물 전달식”에 참석하여 무의탁 및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추석맞이 햄살을 전달했다.



자료제공 _ 시의회 공보팀

솔솔부는 바람으로 불뻘뻘해요~

서민의 주머니는 물론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유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대란에 앞서, 환경 측면에서의 대안에너지 모색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대체에너지 혹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혜택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1월은 '에너지 절약의 달'.

에너지에 대한 명상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의무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이제 정부 차 원에서도 여러 가지 잇점을 갖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적극 나선 것이다.

우리시는 친환경적 순환에너지 이용이란 화두에 대해 태양광, 태양 열, 지열, 풍력 등에서 그 해결 근원을 찾고 있다. 환경에 맞는 에너지원을 찾고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체에너지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우리시는 풍력과 지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이 분야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미 개발된 에너지원의 활용과 함께 내년엔 각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수돗물 원수의 압력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추진할 예정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비 1억원 가량을 책정해 놓고 있다.

대체에너지를 활용함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초기 투자비, 효율성 및 유지·관리비로 초기비용을 빠른 시간 안에 상쇄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소개하면서 원리와 장점, 우리 인천에서의 활용사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인천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
날개직경 2.1m, 날개 3개, 최대전력 210kw/month

스쳐 지나는 바람으로 전력을 만든다 풍력발전

풍력에너지는 전력생산 단가가 싸고 대기중에 폐열과 공해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서 세계적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풍력에너지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이 자주 바뀌고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어 동력원으로서의 전환에 많은 기술이 요구되어 생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 풍력시스템 개발을 통해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시는 강화도 남단에 7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 10여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강화군 삼산과 초지, 지산 등 3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며 11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풍력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이곳이 관광자원으로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뜨듯한 지구도 훌륭한 열자원이다 지열에너지

지열에너지에 대해서는 조금 낯선 감도 있다. 지열은 어떠한 부산물도 없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며, 기후생태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 따라서 지열은 무한한 열원이자 이용가능성이 매우 큰 에너지 자원이다. 지열에너지 활용은 대기온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중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하 8m 깊이에서 약 9℃ 정도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에어컨을 머리에 떠올리면 된다. 냉매를 이용해 작은 차이지만 지하와 지상의 온도차를 감지하고 지하의 에너지를 모아 압축하여 이를 활용하는 원리이다. 이를 위해 히트 펌프라고 하는 장치로 열을 압축, 큰 온도차를 만들어 건물 냉·난방에 이용한다.

우리시의 경우 민간 파트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현재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소래생태공원 내 생태학습관에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시범 가동 중이다. 이밖에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도 건물 전체에 대한 냉·난방을 위한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설치와 이용 시 단점은 설치비가 기존 시설보다 고가이고 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량이 많아 일반 가정용으로 보급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열에너지 활용 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합하다.



소래생태학습관 지열에너지 시스템

대체에너지 사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정부는 태양열,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시설의 설치와 운전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금 5억원, 태양열온수기 3백만원 등 150억원 이내에서 이자율 연 3.50%(변동금리)로 지원되며 시설 자금은 100%, 운전자금은 90%까지 융자해 준다. 상환은 5년거치 10년분할 조건이다.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태양열온수기의 경우는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경우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총 3천470억원이 지원됐다.

세제지원으로는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투자 시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4개분야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경감(65/100)의 혜택을 준다.

관심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사(420-0711~5)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시설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 지원은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031-260-4361~5)를 통해 이뤄진다.

하늘엔 '썬파워' 해가 떠 있다 태양열 · 태양광

오래전부터 태양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면서도 재생가능하고, 무한한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지상에 도달되는 태양에너지는 지구에서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5,000배에 해당하는데 태양에너지의 이용은 크게 태양복사 에너지를 열이나 전기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경우와 자연채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태양열 발전은 큰 거울 등으로 태양빛을 모아 물을 끓여서 발전하는 방식이고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와 같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발전방식이다.



인천대공원 태양광 가로등



남동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 설비

우리시의 경우 웅진군 굴업도는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대안으로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10가구에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잡이에 성공한 셈. 이곳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지난 2002년 5월에 3억7천여만원을 들여 제작되었으며 22.5kW 발전용량을 지니고 있다.

남동과 수산정수사업소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각각 30kW급 발전설비로 건설되고 있으며 물 홍보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의 홍보와 생산된 전기를 정수장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연간 2천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열을 잡았다 제3자 폐열회수 시스템

공단지역이 산재한 인천은 중소제조업체 비중이 높고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폐열량이 만만치 않다. '제3자 폐열회수 이용사업'이라는 명칭의 에너지 재활용정책은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폐열로 스팀을 생산, 타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리시의 경우 이 방법이 올해부터 도입되어 현재 산업쓰레기 전문처리업체인 서구 '동운산업'과 남동공단 소재 '(주)상우'에서 생산된 스팀이 폐수처리 업체인 '세화환경', 단열재 제조업체인 '서한안타민'에 각각 공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경우 충분한 열이 발생해야 하고 전달 효율을 위해 폐열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에너지 생산업체와 인접해야 한다. 소각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악취와 다이옥신 등은 완벽하게 처리되며 보통 1200°C의 고온에서 처리되므로 2차오염의 염려는 없다고 한다.

정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제3자 폐열회수 시스템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경제성 분석, 관련업무 대행 등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에너지관리공단은 1대1 방식의 폐열회수 시스템과 별도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업체와 함께 적합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본사에 배치된 전문가팀을 통한 현장 진단도 실시한다.

글_지영일 · 사진_김정식

태권도공원을 유치하자

민족의 성지 강화, 태권도 공원의 최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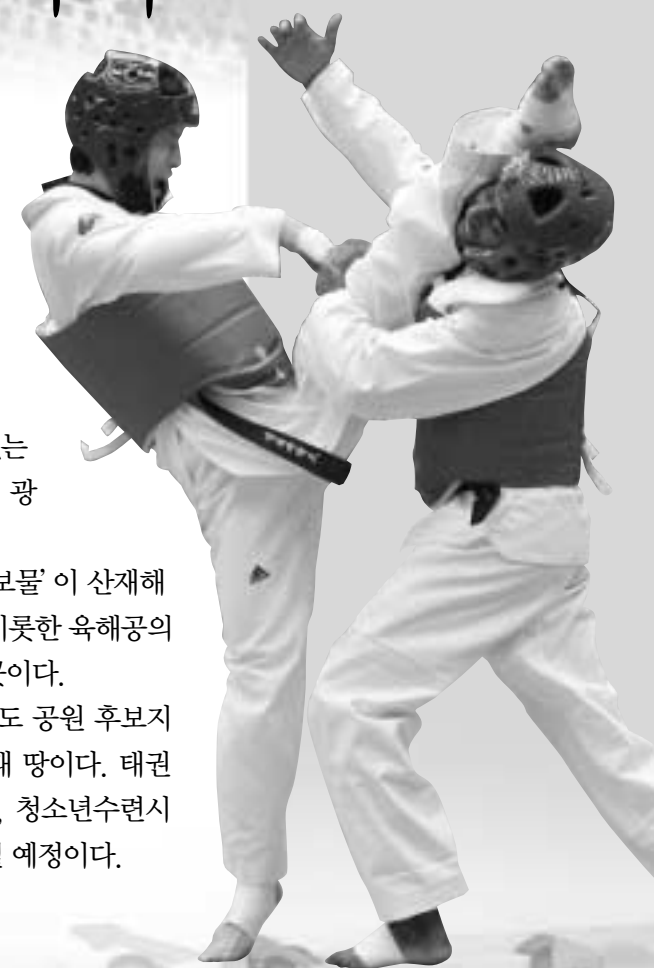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태권인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자 메카가 될 '태권도 공원'은 민족의 성지 강화도에 건립해야 한다.

강화는 단군 개국의 성지이자 대몽항쟁을 비롯해 병인·신미양요 등 반외세투쟁을 펼친 호국의 교두보로서 태권도에 흐르는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

더욱이 마니산, 고려산 등 체육인의 호연지기를 연마할 수 있는 명산들로 둘러 싸여있고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강화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등 최고의 수련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인돌 등 선사시대부터 근대 유적까지 섬 구석구석에 '보물'이 산재해 있는 담장 없는 박물관의 명성을 지닌 곳이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육해공의 광역교통망 체계로 국내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접근이 쉬운 곳이다.

우리시는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46의 3일대 70만 평을 태권도 공원 후보지로 신청해 놓았다. 이 땅은 정기가 철철 넘쳐흐르는 혈구산 아래 땅이다. 태권도공원은 명예의 전당, 극기훈련장, 태권도박물관, 태권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미래태권도연구소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1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 아픔을 어루만진다

아이의 문제가 애꿎게 부모와 자식간 불화의 원인이 되거나 부부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때, 답답하긴 한데 어디다 물어 볼지 막막하고, 드러내놓고 아이의 이상한 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의 차근차근한 도움말이 요긴한 경우이다.

더불어 아이의 행복과 아름답고 건강한 성품을 바란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댓가에 더하여

부모의 정성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사진속의 어린이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대부분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혹은 ‘다른 아이들도 이러나?’라는 의문이 종종 들곤 했을 것이다. 물론 이미 특정 증상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궁금증을 넘어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답답하긴 한데 어디다 물어 볼지 막막하고 드러내놓고 아이의 이상한 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주변의 눈도 눈이려니와 아이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도 작용한다. 하지만 아이의 행복과 아름답고 건강한 성품을 바란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댓가에 더하여 부모의 정성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물론 아이를 위해 애쓰는 부모의 모습속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는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다.

애쓰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시에 있는 아동심리치료시설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시설들은 아이를 이해하고 다루는데 자신이 없거나 기초지식도 얻을 겸 자상한 도움말이 필요한 젊은 부모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이 비밀보장은 기본이고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해 준다.

인천보육원 부설 아동발달지원센터

인천보육원 아동발달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모든 발달 및 정서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에 상담치료실을 개방하였다. 건강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복지 차원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저렴함과 전문적 치료사의 배치가 센터의 자랑이다.

현재 언어치료와 미술치료가 진행 중이며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측정과 평가를 병행하여 전문적 치료에 나서고 있다.

언어치료의 경우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애착장애나 정서장애 등의 영향으로 말이 늦는 아이, 정서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해 주 2회, 40분 치료, 10분 부모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료비는 1회당 1만5천원.

미술치료는 성격이나 심리(정서)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미술작업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돕고 원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게 된다.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주 1회, 40분 치료, 10분 부모상담 방식으로 실시된다. 치료비는 1회당 1만5천원. 이밖에 지능, 성격, 투사 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문의 _ 875-2443 (담당 유전희)

인천아동복지관 부설 아동가족상담실

아동에 대한 전문 복지시설답게 인천아동복지관 아동가족상담실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물론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 치료영역이 다양하고 여러 치료기법을 선택할 수 있어 좋다. 여기서 실시하는 놀이치료는 놀이를 통해 아동의 생각, 경험, 소망, 갈등을 드러내어 아동이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부모나 치료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 아동은 문제 증상을 완화, 치료받고 연령에 따른 사회성, 인지, 정서발달을 촉진받게 된다. 또한 아동은 치료자와의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고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며 환경에 대해 탐색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배운다.

이외에 학습치료, 효과적인 학습 방략프로그램, 또래관계 증진 집단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치료 등도 실시한다.

아동가족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문을 연다. 상담을 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접수상담/부모상담 1회당 2만7천원, 놀이치료 1회당 2만7천원, 언어치료/미술치료 1회당 1만8천원. 문의 _ 876-0045 (담당 조윤영)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희자)은 장애,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있다. 미술치료는 3세 이상의 장애아동(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개별미술치료, 그룹미술치료, 정서장애 미술치료의 형태로 실시되며 비용은 1회에 1만원이다.

음악치료도 3세 이상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하게 되며 1회에 1만5천원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놀이치료 대상은 12개월 이상의 장애아동(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이고 개별놀이치료, 그룹놀이치료, 정서장애놀이치료, 영유아 놀이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비용은 1회당 1만원. 한편 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가 100% 감면된다. 또한 수급자가 아니라도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_ 472-5004

인천미술치료실

한국미술치료학회(KATA) 인증을 거쳐 2002년 8월 설립된 인천미술치료센터(소장 김미영)는 민간시설이다. 개원 당시만해도 인천에 전문 미술치료실이 없었다. 최근에는 교육적 관심 내지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미술치료가 많이 소개되고 활성화되었다. 이곳에서는 보통 1시간 30분 정도를 총 치료시간으로 잡고 이 가운데 1시간은 내담자와, 나머지 20~30분은 부모상담을 한다. 치료비는 회당 3만5천원이며 성인 미술치료도 가능하다. 가장 모범적인 치료형태는 가족치료로서 아이의 문제는 대개 부모의 문제이거나 부부관계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마련. 이 경우 가족치료비는 회당 5만원이다. 자폐, 아스퍼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등 장애가 심각하다면 2~3년에 이르는 장기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의 치료시간은 내담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의 퇴근 후 늦은 시간도 가능하고 휴일에도 치료실을 연다. 연중무휴인 셈. 인천미술치료실은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거나 부모나 아동이 치료실을 찾는데 장애가 되는 여타 조건을 없애기 위해 융통성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 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1시간 이내의 상담은 무료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밖에 이곳에서는 일반인 대상 교육과 교사 직무연수, 외부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_ 822-0332

김태우 아동발달센터

김태우 아동발달센터는 1999년 개원한 민간치료시설이다. 100여평 규모의 센터는 음악치료실, 인지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놀이심리치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각 치료실마다 전문치료사들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음악치료의 경우 음악이 좌뇌와 우뇌에 관련한 속성을 모두 갖고 있어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면 두 반구의 상호협력과 교류로 아동의 창의력 형성 효과가 크다고 한다. 아울러 개인·집단별 역동적인 음악활동으로 대인관계 향상, 정서장애 치료, 학습장애 치료 등을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 형제, 자매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음악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김태우 아동발달센터는 지역학교와 연계해 중앙초등학교, 선학초등학교, 문학초등학교와 교류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지원교육과 월 1회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회당 치료비는 3만원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치료실 문을 연다. 문의 _ 821-2752

사랑의 교실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 개별화 교육과정에 준하여 철저한 개별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곳이 '사랑의 교실' (원장 조현자)이다. 아파트를 치료실로 꾸며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은 치료방식도 다른 곳과 달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치료효과를 위해 월단위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치료비(월 30만원)를 받는다. 치료횟수는 주 3회(회당 40분)를 기본으로 한다. 이곳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력개발, 주의집중력 언어치료, 사회성 등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정신지체아, 학습장애아, 정서장애아, 전반적 발달 장애아(자폐), 언어장애아 등을 치료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통해 가정 결손 여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아동 심리이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사랑의 교실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치료계획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부모나 아동은 훨씬 편안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다고 한다. 전화나 내방을 통해 언제든지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편의에 맞춰 시간과 요일이 결정된다. 문의 _ 516-2018



■ 인천지역 특수아동 치료 · 교육시설			
소재지역	기관명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계양구	인천인혜학교(정신지체특수학교)유치부	518-8552	www.inhye.or.kr
	노틀담복지관 조기교육실	542-3711	www.ntd.or.kr
	사랑의 교실	516-2018	
	이은희언어치료실	554-7098	www.cyberspeech.or.kr/lehslc
남 구	애향어린이집	873-3731	
	한울타리어린이집	424-0139	
	인천보육원	875-2443	www.icch.or.kr
	인천아동복지관 아동가족상담실	876-0045	www.ic-child.org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언어치료실	873-0541	www.icwelfare.or.kr
	비손발달지원센터	875-6402	
	징검다리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	873-3208	
	한국운동재활협회 인천교육원	891-3129	
남동구	강남조기교육실	472-1258	
	길병원특수교육센터	460-3820	www.ghil.com
	소리샘언어치료실	469-0220	소리샘언어치료
	논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446-2986	
	다지기특수체육교실	437-2144	http://dajigi.kids.co.kr
	성광유치원	464-6033	
	성산베데스다 장애어린이집	435-0036	
	성신통합교육센터	464-1871	
	성심아동발달지원센터	422-2990	
	시트어린이집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472-5004	www.ndrehab.or.kr
	신명장애어린이집	422-6373	
	언어치료실	433-7524	
동 구	은혜어린이집	762-7565	
	인천해광학교(시각장애특수학교)유치부	522-8345	www.ichk.sc.kr
	인천성동학교(창각장애인특수학교)유치부	524-3527	www.sungdong.sc.kr
	인천해림학교(정신지체특수학교)유치부	514-8650	
부평구	부평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501-4484	
	살롬에덴어린이집(통합보육)	502-4688	
	이웃사랑어린이집(통합보육)	504-5992	
	엠마누엘 조기교육원	522-0950	
	딤스열린교실	513-9944	www.dibsnara.com
	인천아동발달센터	517-2941	www.icddcenter.co.kr
	초록소리	516-0124	www.ewhaslp.com
	프라자페아언어연구실	506-1371	
서 구	유아체육연구원	512-6191	
	푸른생활학교	577-4009	
	도담어린이동산	583-3654	
	라파아동발달센터	579-7757	www.rapha.or.kr
연수구	인천연일학교(정신지체특수학교)유치부	816-6472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조기교	833-3051	www.icjb.or.kr
	김태우아동발달센터	821-2752	
	연수제일감리교회장애아 조기교실	821-8013	
	이화언어치료실	819-0102	
	인천미술치료센터	822-0032	www.iatec.or.kr
중 구	자유유치원	777-1563	www.jayu.kg.kr
	미가엘복지관 조기교육실	766-0981	
	삼일특수교육원	883-9531	
	인하대병원 학업능력센터	890-3880	www.inha.com
	인하대병원 언어치료실	890-2493	www.inha.com

혹시, 우리자녀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다소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력이 왕성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한다. 부모의 훈육과 사회적 가치, 질서에 대한 훈습과정에서 아이들이 고분고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반항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걱정이 크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게 되곤 한다. 이럴 때 부모들은 어른의 관점 내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아이를 문제 삼아 일반적으로 나무라기 보다는 아이의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작 문제가 되는 정서 및 발달·행동장애 아동들은 여러 부적응 행동양상으로 인해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성 기술이 부족하고 언어적 표현이 미숙해 환경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로인해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자녀-친구관계가 곤란을 겪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우울하거나 불안한 아동
- 자신감이 부족하고 집밖에 나가면 위축되는 아동
- 말을 조리있게 못하고 더듬는 아동
- 무엇이든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 버리는 아동
- 가출이나 도벽이 있는 아동
- 주의가 산만한 아동
- 반복적으로 근육을 움찔거리는 아동 (눈을 깜빡이거나, 어깨를 실룩거리는 등)
- 손톱을 깨물거나 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아동
- 이미 대소변 가리기가 끝났는데 밤 또는 낮에 이부자리나 팬티를 적시는 아동
-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된 아동
- 학습에 문제가 있는 아동
- 조음,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눈-손 협응능력과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아동
-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여행의 맛’ 듬뿍 실은 홍익회 수레

“오징어, 땅콩, 삶은 계란...”
‘이동식 매점’인 폭 좁은 수레(카트)를 끌고 다니는
홍익회 판매원의 낭랑한 목소리는 ‘여행의 맛’을 돋우는데 일조했다.
지갑이 좀 두둑한 사람은 홍익회 카트에서
캔맥주와 마른 오징어를 집는 호사도 부려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트에 뭐가 들어있나 기웃거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입석 승객들의 뒷꿈치를 까지게 하는 공포의 대상인 카트에는
보통 삶은 달걀, 사이다, 과자 등 고전적 품목이 실리지만
천안역을 지나면 호두과자, 대구역을 지나면 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특산물이 채워지기도 했다.

사진은 1961년 교통부 강생회(康生會·홍익회 전신) 소속 여판매원의 모습이다. <鉉>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콩 마을의 두부전골

콩마을 두부의 콩은 멀리 백령도에서 공수해 온 토종 콩이다.
좋은 토양에서 청정 해풍을 맞고 자란 백령도 콩으로 만든 두부라 고소하면서 담백
하고 부드러워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
주인장 김선조씨는 수입콩을 한알도 섞지 않고 순수 백령도 콩으로만 직접 손두부
를 만들어 각종 두부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
두부전골에 쓰는 육수는 전날 다시마, 무, 멸치, 고추씨 등으로 만들어 놓는다. 육
수의 신선도를 위해 하루 필요한 양만큼만 만든다.
여기에 두부와 표고·팽이·느타리버섯, 쇠고기등심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으면 얼
큰하면서도 맛이 깔끔한 두부전골이 만들어진다.
두부구이, 콩빈대떡, 되비지 등도 콩마을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

- 📍 두부전골 5,000원
- 🏠 연수구 연수1동 574-9
- ☎ 811-1132
- 🚗 70석
- 🅑 2대



푸주옥의 도가니탕

옛날 큰 잔치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일 넓은 마당에 내걸리곤 했던 무쇠솥, 그 안에서 12시간 푹 고아진 도가니탕이 푸주옥이 자
랑하는 대표메뉴이다.
식으면 묵처럼 변할 정도로 진해 한 그릇만 먹어도 포만감이 크고 쉽사리 배가 꺼지지도 않는다.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이 ‘입에 짹~짹 달라 붙는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5년 단골을 자처한다.
진국이라는 찬사가 늘 따라붙는 푸주옥의 도가니탕 국물은 소의 무릎뼈인 도가니뿐 아니라 사골
과 우족도 함께 어우러져 빚어진 맛이다. 그러니 머리나 잡뼈같은 것으로 낸 국물맛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국물에 소금과 파, 후추를 솔솔 뿌려서 푹 익은 각두기와 금방 무쳐 나오는 겉절이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밥 한그릇을 푹딱 비우는 일 쯤이야 순식간이다.

- 📍 도가니탕 10,000원
- 🏠 서구 심곡동 278-6
- ☎ 561-0243
- 🚗 160석
- 🅑 50대



빵 한 조각에 담은 사랑 한 스푼 정성 두 스푼

남동구 만수3지구 뉴서울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브레드하우스’의 사장 곽병만씨가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진 빵을 꺼낸다. 따끈따끈한 빵은 부인 박송화씨의 손에 의해 비닐봉지 안으로 얹전히 들어가고 비닐로 포장된 소보루, 단팃빵, 크림빵 등 50여 개의 빵은 다시 종이 상자에 담긴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 예림이가 “엄마 이거 주문 받은 거예요?”하고 묻는다. 엄마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아빠가 한달에 한번씩 어려운 분들께 나눠드려고 만드신 빵”이라고 설명한다. 예림이의 얼굴에선 미소가 번지고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 저희도 좋지요.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박송화씨의 말이다.



1~5 ‘서광석의 앙브레’의 서광석 사장이 푸드뱅크에 빵을 전달하고 있다. 2~4 ‘브레드하우스’의 곽병만 사장이 푸드뱅크에 기탁할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구워낸 후 부인 박송화씨와 함께 상자에 담고 있다.

브레드하우스의 곽병만 사장처럼 남동구제과협회(회장 손일환)에 소속돼 있는 20여명의 회원들은 순번을 정해 한달에 한차례씩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빵을 기탁하고 있다.

남동구제과협회의 빵 기탁은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의 푸드뱅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자원봉사센터가 원한 것은 팔고 남은 빵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빵을 제공해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원회의를 거친 끝에 이왕 좋은 일을 하려면 직접 만든 신선한 빵으로 도와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시작이 돼 한 달에 한 차례씩 500여 개의 빵을 제공했고 롤빵이나 케이크 등도 곁들였다. 그리고 연말이면 따로 케이크를 만들어 돕기도 했다. 현재는 20명의 회원이 4개조로 나누어 한 달에 7명씩 350개 정도의 빵을 만들어 기탁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빵 기탁은 지금까지 총 30여회, 빵 개수로 치면 7천개가 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원에 이르는 돈이다. 이렇게 기탁된 빵은 푸드뱅크를 통해 남동구에 있는 소망의 집, 모니카의 집, 은혜의 집, 예랑의 집, 초도노인요양원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10월에 순서를 맡은 ‘서광석의 앙브레’ (남동구 만수2동)의 서광석 사장은 50여개의 빵 이외에도 롤케이크와 생일 케이크를 따로 더 준비했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이 제실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만들어 놓은 빵을 가지러온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마침 내일 양로원에서 생신잔치를 한다고 했으며 너무 좋아한다. 그 모습을 보고 덤으로 초와 폭죽을 더 챙겨서 넣어준다.

93년 처음 빵집을 연 서광석 사장은 지난 97년부터 주위에 있는 시설에 빵을 기탁하기도 하고 장애인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다달이 빵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손일환 회장은 “너무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 지금은 20여명만 자원봉사센터에 빵을 기탁하고 있지만 저희 회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사회시설이나 동사무소 등에 빵을 제공하는 분들도 많아요. 남은 빵으로 돕는 건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회원들께 정성 담은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지요”라고 말한다.

간디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했다던가? 빵집 사장님들이 정성으로 만들어 기탁한 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눈물 젖은 빵이 되어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글 _ 정정에 · 사진 _ 김정식

고려시대 ‘로열 패밀리’의 근원

엄마 이화미(35)씨는 동화구연 교사다. 동화 속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이 입가에 맴도는 그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하는 주부다.

나라사랑은 향토사랑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 우리 고장 인천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원인재 탐방에

아들 이도현(효성초4)과 같은 학교 여자친구 김수빈의 손을 잡고 나오게 되었다.

우리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전날밤 한복을 다림질하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왔단다.



조상을 생각하며 덕을 닦는다

이번 탐방은 그동안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했던 것과는 달리 인천 이씨 종친 어르신인 석천 이준상(李俊相 · 70) 선생께 직접 원인재와 그 문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석천은 원인재 마당 오른편인 명인당에 거처를 두고 원인재를 살피시는 분이다.

뜰판 위에 자리를 펴고 누운 붉은 고추, 호박말랭이, 도토리 녹말가루는 가을 별 따사롭다고 마냥 즐기고 있다. 일단 가을날 고택에서 옛이야기를 듣는 분위기는 완벽한 것 같다. 담장 옆에 씨 트고 올라온 수탉 벧 같이 생긴 맨드라미도 어르신의 옛이야기에 머리를 곤추세웠다. 거기에 질새라 ‘다도’ 예절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 있는 도현이는 신발을 끌지도 않고 예를 갖추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대견해 보였다.

인천 이씨 중시조 이허겸의 자취는 인천지하철 원인재역 옆에 1999년 새로 복원된 원인재에 남아있다. 정통 양반 사대부집 가옥양식에 따라 지어진 원인재는 바로 이허겸을 모신 12칸짜리 재실이다. 재실이란 묘소에 딸려 있는 진각이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또는 유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집 등을 일컫는 것으로, 원인재 옆에는 실제로 이허겸의 묘가 있어 지금도 이곳에서 제사를 준비한다.

원인재는 모두 5개의 독립적인 건물(돈인재, 율수재, 승휴당, 원인재, 명인당)과 4곳의 문(경선문, 산양문, 협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옥마다 각각에 담긴 뜻이 참으로 깊다. 대표적인 이름 몇 가지만 풀이하면 돈인재는 인(仁)을 돈독하게(敦)하는 곳이란 뜻이며, 율수재는 조상을 생각하며 덕을 닦는(修)곳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집들마다 뜻 깊은 이름표를 달고 있는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아이들의 눈엔 신기한 모양이다. 요즘은 공동주택 현관문에 숫자 번호표가 일색인데...

명당 중의 명당 연화부수지

원인재 옆에는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 언덕 한가운데에 시조 이허겸의 묘소(비지정 지방유형문화재)가 1,0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다. 원인재가 위치한 연수동 548번지 일대는 과거에 ‘간치도’라 불렸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까치섬’이다. 이곳을 칭하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연화부수지(바다 가운데 섬)’가 있는데, 이 말은 연꽃이 물 위에 살포시 떠 있는 형상을 뜻한다. 실제로 시조 이허겸의 묘소가 자리한 언덕은 개발되기 전만 하더라도 물이 들어오던 송도갯벌로, 바다 가운데 마치 작은 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지금은 주변이 간척사업으로 농토가 되었고 1990년대 택지개발 사업으로 보존의 위태로움도 겪었으나 문중의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원인재 복원공사를 하면서 묘를 증축하여 둘레가 약 15m이며, 높이는 2m이다.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붉은 기운을 띠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1 가을 햇살 짙은 원인재 마당 2 고추, 호박 말랭이 등이 널려 있어 더욱 더 정감이 간다 3 “이 문이 묘로 갈 때 드나드는 문이지”

이곳은 명당 중의 명당으로 풍수지리로 살펴보면 연화부수형, 또는 해중복구형(海中伏龜形 바다 한가운데 거북이 엮드린 형국)을 이루고 있어 석물(石物)을 세우면 그 무게를 못 견뎌 바다로 가라앉아 버린다고 했다. 돌사람이나 돌사자와 같은 석물이 세워져 있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인천 이씨는 이곳에 조상의 묘를 쓴 뒤부터 불이 일어나듯 고려시대 최고의 가문으로 번성하게 된다. 손자 이자연은 재상이 되고 문종, 선종, 순종, 현종, 숙종, 예종, 인종의 왕비를 배출하거나 외가(7대어항)가 되어 큰 권력을 누렸다. 이처럼 고려시대 초, 중기 7대 임금에 이르는 약 100여 년간 인주이씨들은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을 장악한 고려조 최대의 가문이었다.

인주(仁州 인천) 이씨의 내력을 보면 통일신라 말 이씨의 선조 ‘허기’라는 사람이 중국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 황제 현종에게 잘 보여 황제의 성인 이씨 성을 하사 받고 돌아오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었다. 당시 신라의 경덕왕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허기를 소성백에 봉하여 이때부터 그가 살고 있던 지금의 인천이 ‘소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이로써 인천 이씨가 된 이 집안의 후손들은 그 뒤 대대로 문학산 주변인 지금의 연수동, 선학동, 문학동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점차 그 세력을 키워 나갔다. 그러다 이씨 성을 하사받은 뒤로는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에서 이허점처럼 한동안 이씨와 허씨를 함께 성으로 쓰고 이름을 한 글자로 짓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원인재는 인천 시민 모두의 것

지난 90년 시 문화재 자료 제 5호로 지정된 원인재는 인천 이씨만의 것이 아닌 인천시민 모두의 것이 되어 가고 있어 더욱 친근하다. 탐방을 간 날도 연수문화원 주최 ‘전통문화예절학교’가 개설된 상태였다.

인천 이씨 대종회에서는 젊은 후손들을 모아 방학이면 백여 명 넘게 ‘뿌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행사를 위해 자리를 선 듯 내어 주는데 하늘을 품은 듯 넓은 앞마당에서는 가끔 전통혼례가 치러지기도 한다.



또 재실에서는 다도와 석천 선생의 한문지도가 있는데 방과 후에 오거나 새벽잠 안자고 부지런히 눈비비고 오는 아이나 할 것 없이 일대일 개별지도로 다 거두어 주신다. 쥐똥나무 껍질을 벗겨 만든 ‘서산대’는 회초리가 아니라 글을 토박토박 짚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곧은 흰 나뭇가지를 쓰다듬었다.

매년 4월 5일은 청명일로 인천 이씨 대종회가 원인재에 모여 시조 이허점의 묘에서 제를 올리는 날이다. 봄에 지낸다 하여 ‘춘향제’라 하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후손들만 해도 줄잡아 1천여 명이다.

김씨 성을 가진 수빈이는 “전통가옥을 처음 구경해봤어요. 저는 김씨인데 다른 성씨와 집안 역사에 대해 들어보니 다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복은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는 게 좀 귀찮지만 이 집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고 야무지게 말한다.

3학년 때부터 단짝 친구인 수빈이와 학교 대신 문화재 탐방에 나서길 잘했다는 도현이는 “지난 여름방학 때 단체로 온 적 있는데 웅성웅성 다녀서 뭐가뭔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엄마랑 함께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전통가옥이 네 모난 아파트보다 훨씬 숨씨가 좋다고 생각했어요”라며 뿌듯해 한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살살 부채질 해 주는 석천 어르신은 뒷길 수수밭으로 일행을 데려갔다. 수확을 앞둔 자주색 낱알 꼬투리들이 고개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는데도 아이들은 옥수수 애기만 수련댄다. “빨간 수수팔떡, 수수밥이 얼마나 맛있다고? 수수를 먹고 큰 집기러기나 닭들은 알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낳는데 붉은 빛이 도는 알을 낳는단다. 그만큼 영양이 좋은 거지” 석천 어르신의 언질 끝에 엄마 이화미씨는 “아마, 잘 자란 수수만큼 생각주머니가 커졌을 거예요. 제 맘도 붉어졌는걸요”라고 덧붙인다.

이른 아침부터 듣기 시작한 인주(仁州 인천) 이씨의 옛이야기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끝났다. 뒷집지고 걷던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빙긋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내 이야기 바닥났어”

원인재 어디선가 마른 푸성귀 밟는 소리가 햇살에 잘게 부서진다. (원인재 821~1230)

글 _ 조은숙(〈부평사람들〉기자) · 사진 _ 김성환



4 손주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재미있게 원인재에 대해 설명하는 석천선생 5 마치 민속촌에 온듯... 6 원인재 뒷편에 있는 붉은 수수밭

한낮인데도 두견이 슬피우니

고려를 빛낸 인천 이씨의 인물들 중에는 대학자인 이인로(1152~1220) 선생이 있다. 1180년 문과에 급제해 직사관으로 있으면서 석학들과 어울려 시가를 즐겨 ‘강좌7현’으로 꼽히고 있다. 시문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능했다고 한다. 저서에는 〈파한집〉과 〈쌍명재집〉 등이 있는데 특히 파한집이 유명하다. 원인재 담장 바깥 길가에 서있는 이인로 선생 문학비에 써 있는 한문시 한 편을 풀어 실어본다.

쌍명재 산에 살면서 / 봄은 갔건만 꽃도 그대로 있고 / 하늘은 맑건만 골짜기는 그늘졌네 / 한낮인데도 두견이 슬피우니 / 비로소 서는 곳이 깊음을 알겠네



아파트야 호텔이야? 뜬다, 송도 웰 카운티!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연수구 동춘동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4공구 A-2블럭에 짓는 아파트가 11월 15일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설립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첫 분양사업이자 송도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는 송도신도시에 2천8백44세대에 이르는 대단위 아파트를 4개 단지로 건설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2단지 798세대를 우선 분양한다.

‘웰 카운티(Well County)’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는 평형대별로 32평 144가구, 38평 190가구, 40평 7가구, 44평 150가구, 49평 154가구, 54평 87가구, 62평 8가구, 64평 58가구 등이 지하 2층, 지상 9~15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시민의견 반영한 아파트

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설계 당시부터 분양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아파트의 설계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설계 경기를 통해 지난 2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과 (주)토우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우수작으로 결정했다.

지난 5월에는 전문가와 시민의 평가를 받는 품평회를 열어 소비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일랜드형 주방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나 사이드로 불리는 측세대의 측면에 창호시설을 만들어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 안방 전용 화장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것 등이 모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더욱 친근하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도대체 얼마에 분양을 할 것이냐는 것. 공사 분양팀은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원가계산을 하는 한편 타시도의 분양가격 모델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공고가 날 때 즈음에 확정되겠지만 도시개발공사는 송도신도시에 이미 분양된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들이 아파트 부지를 평당 160만원에 확보한 것과는 달리 도시개발공사는 2배에 달하는 320만원에 땅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원가가 높게 책정됐지만 공사의 이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는 웰빙 아파트

도시개발공사는 송도신도시 웰 카운티를 통해 인천의 주거 건축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웰 카운티가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는 만큼 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는 고품격 아파트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기업은 물론 외국계 병원과 외국인 학교 등이 들어오게 될 것이므로 외국인도 살만한 주거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생각이다.

이런 도시개발공사의 생각은 단지 조성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웰 카운티는 근린공원, 너비 50m의 완충 녹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덕분에 단지내 녹지율은 40%에 달하고 아파트를 둘러싼 근린녹지를 포함할 경우 70%에 이른다. 외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숲속 아파트다. 또 아파트 건물마다 디자인이 달라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의 개념을 과감하게 탈피했다.

고품격 아파트의 면모는 설계된 아파트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된다. 우선 3Free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눈에 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없는 공간 (Barrier Free), 전세대와 시설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무화재 공간(Fire Free), 범죄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설계와 위험 예상지역에 CC-TV를 설치한 무범죄 공간(Crime Free)의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쓰레기 관로 수송설비.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관로가 설치돼 쓰레기 운반 등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 설치된 별도의 관로를 통해 쉽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급마감재를 사용해 ‘새집증후군’의 염려를 없앴고 아파트에 공급하는 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정수하는 중앙정수시스템, 가구 내 진공청소 설비 등도 도입된다. 이렇듯 심혈을 기울인 아파트가 시민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공사는 송도신도시 4공구 현장에 견본주택을 착공해 11월 15일로 예정된 분양 공고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송도 웰 카운티 분양으로 우리 인천의 주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도시개발공사의 포부가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2007년 6월로 예정된 입주와 함께다.

글 _ 정경애 · 사진제공 _ 도시개발공사

송도 웰 카운티, 이것이 국내 최초

웰 카운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다양한 최신 시설을 도입했다. 비용은 좀 들더라도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목표에서다.

Fire Free : 웰 카운티의 3Free 설계 중 무화재공간인 Fire Free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전 세대와 시설물에 스프링클러를 각각 설치해 화재가 나면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기존의 아파트나 건축물이 대부분 15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과 비교해 보면 완벽한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감지할 수 있다.

데크 및 지하 주차비율 100% :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도 지상 주차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웰 카운티는 주차장을 만든 후 인공데크를 덮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100% 지하화했다. 지상과 데크 상부는 오직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만 조성되는 것이다. 덕분에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입주자들의 이용이 한결 수월하다.

실내 자동환기 시스템 : “여보, 거실 공기가 탁한데 베란다 문 좀 열지?” 이런 대화는 웰 시티에는 듣기 힘든 얘기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신속하게 배출하고 동시에 신선한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는 실내환기시스템이 전 세대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다.

‘도시 품격’ 우리가 높입니다



우리가 동북아관문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큰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요즘, 도시개발공사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03년 5월 각종 도시개발과 공공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도시의 품격을 갖추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사다. 우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인 만큼 주인은 인천시와 시민이다. 따라서 공익과 수익의 균형과 조화에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도시,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신개념의 주택건설, 택지개발, 국민임대아파트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관광단지 조성과 도시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각종 도시개발 및 공공사업도 담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주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이 송도신도시 4공구에 짓는 2천8백여 가구의 아파트이다. 송도신도시 아파트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지향하는 경제자유구역에 걸맞게 짓겠다는 목표로 기존의 아파트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으로 건설될 것이다. 또 주택공사가 택지로 개발 중인 남동구 논현 2지구에도 1만8천평의 부지에 9백90가구를 건립할 예정으로 내년 10월경 착공과 함께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도 2012년까지 5천 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그 첫 사업으로 서구 연희동에 250가구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2006년 10월경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될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창택지지구는 1만5천1백평 규모로 내년말 준공할 예정이고 영종지역의 택지개발사업도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공사의 다른 사업분야는 관광·레저 사업. 인천공항과 연계한 용유·무의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형 관광은 물론 내국인도 다양한 관광 체험을 하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08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심 재개발, 낙후지역 종합개발, 유통단지 조성, 신도시 건설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여러 사업을 통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간다는 야심찬 포부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다.

차 한 잔 | 김용학 사장

“‘인천 비전’ 우리공사도 한 몫 해야죠”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동북아 중심으로 뻗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바로 이런 인천시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해 나가면서 최고의 효율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지요” 김용학 사장은 경영철학을 묻는 물음에 공사의 역할과 목표를 이렇게 정리했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복지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경영에 나서고 있다. 개발은 환경을 보존하는데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을 위해 환경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김 사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경영도 강조한다. 고품격의 주거공간은 충분한 문화의 향기를 향유할 때 다가오므로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품격높은 생활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공사가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문화도시 인천, 고품격도시 인천이 도시개발공사의 발걸음과 함께 시민 곁으로 한발 한발 다가오는 듯 하다.



얼굴만 예쁘다고 얼짱이냐~ 개성이 있어야 얼짱이지~



인터넷 얼짱카페인 ‘오대 얼짱카페’를 운영해 21C글로벌리더 특기로 인하대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경미(중앙여상 3)양을 만났다. 카페는 2002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활동 중인데 제1기 얼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박한별, 구혜선, 박솔미씨 등이며 얼짱카페로서는 최초로 연예인이 되는 통로로 매스컴에서 인정을 받아왔다.

이경미양은 “제가 얼굴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예쁜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대 얼짱’ 카페를 만들게 되었답니다”라고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얼짱을 뽑을 때 ‘얼굴만 예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경미양은 다섯 명 각자 본인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신중하게 뽑은 것이 잘 맞은 것 같다고 한다. 얼짱 카페를 운영하면서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카페가 연예계로 데뷔하는 경로가 된 만큼 예쁘게 봐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는다.

얼짱카페 주인장이기 이전에 그의 학교생활은 어땠을까? 이경미양은 “솔직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모범생 같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확실한 제 꿈이 생기니까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딱 올렸어요. 지금 성적은 상위권입니다”라고 자랑한다.

이런 노력들이 인정돼 이경미양은 특별 전형, 그중에서도 21C글로벌리더에서 특이경력으로 인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특이경력’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경미양은 ‘얼짱카페’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얼



짱’이라는 문화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받고 50%를 차지하는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어 수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수시합격을 한 후로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양은 “많은 분들이 ‘다른 고3이 뻘뻘하게 공부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단지 카페 하나 운영해서 대학 갔다’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고3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아이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경력을 쌓았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대학에 가서는 우선 꿈을 위해 학업에 충실할 것이고 동아리 활동도 폭넓게 하면서 여러 사회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제의로 들어왔으니 그런 것도 해보면서 자신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같은 청소년인데 이런 말하기 민망한데요, 대학입시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에도 비중을 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이경미양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글을 읽고 작은 오해(?)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선을 바꿔서 따뜻한 눈빛으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자’로 지켜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있고 그것을 많이 좋아하는다면 이경미양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글 _ 신유리(선화여중 3학년 · 제4기 청소년웹진 MOO 학생기자)



두툼한 손바닥을 보면 재운이 있을 법한데 그는 가난한 모양이다. 아니 가난하다. 스스로 붙인 무명 '인천 시민 가수' 그 칭호 하나뿐이니 부자일 수 없고, 부자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가을 오후, 빗바랜 잔디 위에 함께 앉아 쪼이는 설핏한 햇살은 차라리 좋다. 자꾸 웃는 헛웃음도, 그의 구두도, 양복 자락도 늦가을 허공 같은 느낌이다.

48세, 강화 교동 사람, 황태음(黃泰音)씨. 그러나 이 이름은 음악으로 크게 떨치라며 정월하라는 작사가가 지어 주었다는 예명이다. 얼마 전까지는 '황진이(黃眞伊) 오라비' 라 해서 황진아로 불렸다. 본명은 황진환(黃眞煥). 작은 키에 짧은 머리 스타일, 검게 탄 얼굴, 얼핏 강단이 있어 보이는 인상이지만 쌍꺼풀 진 두 눈은 그가 겪었을 세파만큼이나 피곤이 묻어 있다.

“제일, 집 사람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그들 같은 남자들이 끝을 못 맺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일 것이다. 번 돈보다 버린 돈이 훨씬 많으니. 그리고 그가 감싸고 어루만지던 날보다 식구들을 두고 밖으로, 밖으로 떠돈 날들이 더 많으니. 호구를 위해, 창(唱)하고 춤추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어느 횃집에서 일을 거들고 있다. 매일 노을 속을 저어 돌아오는 어부였어도 좋았고, 택시 운전사도, 아니면 행상이었어도 좋았을, 그러나 무명 가수가 된 그것은 오직 그 혼자만의 죄일 뿐이다.

그의 몸속에 음악이 고여 출렁거리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나. 열다섯 살 때였나, 스물한 살 때였나. 농사짓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꼭 두 가지. 구성지게 꺾이고 펴지고 하는 좋은 목청과 가난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암전히 공부가 되지 않았다. 자연, 학교는 길게 가지 않았고, 서둘러 들어간 곳이 군대, 해병 하사관 22기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두 가지 유산이 그를 '바람의 자식' 이 되게 한 것이다.

6년간의 군대 생활은 그에게는 참으로 안성맞춤의 트레이닝 기간이었다. '부대원 사기 진작' 을 위해 혼자 각본도 쓰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자칭 군 연예인이 된 것이다. 창부타령을 부르고, 김정구를 부르고, 나훈아를 부르고, '산토끼' 를 창으로 고쳐 부르면서, 또 재담도 하면서 마음껏 끼를 발산했다. 행복한 시절이었다. 혼자 이야기하면서, 마른 풀잎 한 줄거리를 뜯는 그의 오른손과 그걸 입에 물며 가늘게 실눈을 뜨는 그의 미간이 그때의 행복을 말해 준다.



늦 가 을 처 럼 쓸 쓸 한

‘ 인 천 시 민 가 수 ’

황태음 씨





“술이나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문득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로 그가 말한다. 조금 전까지 그가 털어놓던 행복은 그쯤에서 끝이 나 있고, 어느 강 언덕에 갈대들이 쓰러지고 있는지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는 초면인 사람에게 술을 마시자고 할 까닭이 없다. 갈대 언덕에 노을이 물들어 오고, 그의 가슴 속에 빈 술병이 뒹굴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더 추워지다가…。 허락한다. 그의 옆얼굴을 보며 마음 속으로 그가 원하는 술 한 잔을 받아 든다. 이내 불가에 앉은 듯 훈훈해지고 눅눅해진다.

왜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내가 있을까. 이 정처 없는 남자, 이 평생을 흥에만 겨워서 사는 남자, 왜 이런 황태음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번쩍이는 무대 옷 속의 남루가 다 들여다보여도 그게 마냥 좋은 사내들. 예술가들. 원래 세상 한 구석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비워져 있는 것이다. 그곳이 사막이든 절해고도이든.

그래도 그가 행복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에게는 고운 여자 제자들이 있는 것이다.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교도소 위문 공연 등 어디를 가든 몇 명의 제자와 봉사 요원이 따라 나선다. 주머니에 돈은 들어오지 않아도 그게 행복이려니 하는 동지이자 제자들이 있다. 불려만 주면 어디든 자다가도 달려 나가는 이 풍각쟁이 같은 선생과 여자 제자들. 그래서 더 세상에는 이런 예술가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것이 가슴에 맺혀 오늘도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소위 효도 위문 공연을 하는 까닭이다. 1983년부터 오늘까지 21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빼놓지 않은 것이 노인 잔치. 목포에까지 가서 김 모, 박 모 두 분 노인 합동 백수연(白壽宴)을 맡아 치른 것도 다 그런 뜻에서였을 것이다. 아니, 노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힘도 솟고 용기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속죄이면서 또 잠시나마 고단한 자신의 삶을 잊는 방법인지….

그런저런 말을 하면서 팔팔해야 할 이 해병 출신 가수가 자꾸 풀잎만 내려다본다. 힘이 많이 빠져 있다. 어께도 추워 보인다. 지난 9월 12일 ‘황태음소리예술단’이라는 자신의 예명 ‘黃泰音’을 풀어 이름 지은 새 단체가 시작부터 호된 시련을 겪은 것이다. 비바람 때문이었을까. 그의 억센 팔자 때문이었을까. ‘인천 시민 가수’로 멋지게 팡파르를 울리려 했는데 그날따라 무섭게 불어댄 초가을 강풍과 비바람이 그만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것이다.

“아버지께서 구경을 오시려고 집을 나서시는데 그만 우산이 뒤집혀지더라고요.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부는데, 내 참. 적어도 예상 인원을 한 6백 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후원도 좀 받고 한번 멋지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정말 돈은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참석 인원은 고작 2백 명. 그것이 황태음의 눈물이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언제 침울했었냐는 듯, 처음으로 시원하게 웃는다. 그 웃음이 저 속에 든 울음만큼 맑은 것을 그는 알까. 그리고는 오히려 신이 난 사람처럼 이번 말고 전에도 한번 처참한 패배를 했었다며 더 크게 웃는다. 한 3년 동안 노래를 접고 돈을 벌기 위해 도자기 유통업에 뛰어들었었다는 것. 난데없이 전혀 무지한 도자기 사업에 손을



뒀으니 까짓 구월주공아파트 한 채 고스란히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그만큼 순박했다는 말에 덜지운 미소 속에서 얇전히 고개를 끄덕인다.

황태음씨가 ‘황해큰소리예술단’을 만든 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다. ‘이별의 인천향’ ‘연안부두’에 버금가는 자신의 노래를 발표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황해큰소리예술단’ 출범과 함께 인천 시민의 자존심, 인천 시민의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인천을 주제로 한 세 번째 히트 곡은 꼭 자신이 부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노래가 정월하 작사, 김정일 작곡, ‘항구의 불빛’이라는 노래였다. 행진곡 풍의 정말 명곡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순박한 남자의 그날 CD 출판 기념회와 예술단 출범 행사는 그렇게 밥값만 축내고 막을 내렸다.

“아내가 뭘, 뭐라고 합니까.”

멋쩍게 웃으며 아까보다 훨씬 기울어진 햇살을 따라 자리를 옮겨 앉는다. 그래도 월드컵 때에는 테크노 민요 창작 발표회도 가졌고, 작년에는 소래포구 축제에 초대도 되었다고 한다. 가끔 iTV나 무슨 FM 방송에도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결코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며 목소리에 힘도 준다. 그럴 것이다. 그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아내가 매일 그가 입고 무대에 오를 한복 바지저고리를 가지런히 다려 놓고 일터로 나가는 한은.

가슴이 답답해서 찾아왔네 마음이 울적해서 또 다시 왔네
싱싱한 파도소리 상큼한 바닷내음 여기가 월미도인가
갈매기 바라보며 아무리 생각해도 항구의 일번지는 인천이 아니냐
사랑에 일번지는 월미도가 아니더냐 잘있거라 다시 오마 내사랑 월미도야

(항구의 불빛, 작사·정월하 | 작곡·김정일 | 노래·황태음)

참 흔한 남자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그리고 언젠가는 꼭 무명을 벗어 버릴 무명 가수 황태음씨. 이제는 날릴 집도 없으니 이 이름 없는 자칭 인천 시민 가수의 ‘항구의 불빛’은 어느 골짜기에 메아리로라도 남을 것이다. 천둥처럼 울릴 것이다.

글 _ 김윤식(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건조한 가을, 촉촉한 눈 지키기

글 _ 이상언 (안과 전문의 / 인천 한길안과병원 진료과장)

건조한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눈이 뻑뻑하고 심하게 충혈된다며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는 안구건조증의 대표적 증상으로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이나 겨울에 유난히 심해진다. 각종 환경공해로 인해 먼지가 심한 대도시일수록, 컴퓨터 모니터나 TV 앞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안구건조증도 늘어나는 추세다.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도 수술로 인해 약 9개월간 눈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건조한 가을 날씨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



정상인이 만들어내는 눈물의 양은 하루 2~3cc 정도로, 눈을 깜박일 때마다 흘러나와 안구 표면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눈을 부드럽게 한다. 안구건조증은 바로 이 기능에 이상이 생겨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빨리 마를 때 발생한다. 눈물은 점액층, 수분층,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지방층은 눈물이 눈 표면에 골고루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눈물이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방층이 부족해지면 수분층 역시 빨리 증발돼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그 자극이 오히려 점액층의 눈물분비를 자극해 유루증(눈물이 정상적 눈물길을 따라 흐르지 못하고 눈꺼풀 가장자리로 넘쳐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안구건조증 환자가 '바람만 불면 눈물이 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이 밖에 항고혈압 치료제, 항우울증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충혈치료제, 일부 여드름치료제 등의 복용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뻑뻑해지며 붉게 충혈된다. 더 심해지면 눈이 부시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며 이물감이나 끈적끈적한 눈곱이 끼기도 한다. 안구건조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과에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나 눈물막 파괴시간 측정검사(BUT 검사), 눈물 분비량을 측정해 보는 셔머테스트 등을 받아 보면 된다.

가정에서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실내습도를 조절하고 헤어스프레이, 드라이기 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안구건조를 막는 좋은 예방법이다. 또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박이는 것이 좋으며, 안구건조증이 심한 사람은 각막에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을 삼가야 한다.

눈이 건조하다고 해서 식염수나 충혈완화제를 사용하면 눈물이 희석되고 세균감염의 위험이 커 좋지 않다. 안과전문의와 상의해 자신의 눈 상태와 건조증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하거나 인공눈물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물을 보존하는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눈물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인 눈물점을 막는 것으로, 눈에서 코로 이어져 있는 눈물길을 막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눈물이 눈 속에 좀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보통은 콜라겐, 실리콘 등의 재질로 만든 누점마개나 레이저, 전기소작기 등으로 눈물점을 막는다. 시술시간은 불과 1~2분 정도로 짧고, 통증도 없어 간단한 수술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 전문가들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 440-2073)

다시 가고 싶은 곳, 단양



평소 우리 부부는 주말을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지낸다. 올해 한번쯤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야할텐데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차에 소백산, 월악산의 단풍도 만나고, 아쿠아월드에서 피로도 풀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단양으로 떠났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을 벗삼아 떠난 1박 2일의 여행은 마냥 짧기만 했다. 아름다운 단양

에는 단양팔경으로 알려진 도담삼봉, 구담봉, 옥순봉 등이 있으며, 소백산 일대에는 고수동굴과 같은 석회암동굴 등이 있어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며, 산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소백산의 산책로 등 갈 곳 또한 많이 있었다.

점심을 먹었던 식당 주인아줌마께서는 "보기 좋네요"하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돈끼리 마치 자매인냥 같이 다니시는 모습이 보기 좋으며 부러워하셨다. 같은 고향에서 언니, 동생처럼 자라 더욱 그러신 것 같았다.

아쿠아월드는 야간시간을 이용하면 할인혜택이 있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수영복이라 어색하다는 시어머님과 신혼시절에 입어본 비키니 수영복 이후 처음 입어본다는 우리 엄마, 결혼 후 살이 쪼들면서 수영복을 입은 남편, 갸름한 수영복을 입은 조카, 이제는 아줌마 몸매가 돼버린 시누이와 나 이렇게 우리 일행은 어색하기만 했던 순간을 잊은 채 물놀이와 레몬탕, 커피탕 등 각종 탕 속에서 지친 몸을 쉬기도 하고, 수중강타로 뭉치고 아픈 관절을 치료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들께서는 얼마나 하셨는지 허리부분이 빨개졌는데도 시원하다며 좋아하셨다.

우리 일행은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아쉽기만 했던 짧은 하루를 보냈다.

처음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다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년에 한 두번 정도는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던 여행이었다.

계은영 (계양구 효성2동)

움막에서의 하룻밤

가을여행 하면 나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군대 가기 전에 몇 달간 여유가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가을 무전여행을 선택했다. 하이킹을 무척 좋아했던 나는 사이클로 전국을 순회하기로 했다. 한 달간의 기간으로 내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보며 코스를 정해 보았다.

드디어 장도에 올랐다.

식사 때가 되면 들판에서 농부들께 새참과 점심을 부탁하며 해결했고 잠자리는 벼베기, 들깨털기, 콩타작을 도와주며 해결해 나갔다.

며칠이 지나서 속리산 말티재를 넘어 내려오던

중 일몰 시간에 쫓겨 스피드를 내다 펑크가 나고 말았다. 날은 어두워지고 사방은 암흑이었다. 더욱이 밤에 비도 내리기 시작해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비를 피해 헤매던 중 움막같은 곳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우선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다. 헤매고 다니느라 피곤하고 졸음이 와서 그대로 꿀아 떨어져 버렸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일어났다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곳은 생각만해도 무시무시한 상어를 보관하는 움막이었다. 순간 아찔하고 무서워 혼비백산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그때를 생각하면 재미도 있었고 몸이 오싹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원효대사의 일화도 생각이 난다.

윤지영 (연수구 옥련동)

가을에 화풍이

친구야 생각나니? 우리 가을에 화풍이 하러 보문사에 갔던 일. 생각한다. 지금의 내 심정이 그때와의 감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습관적으로 가을이면 화풍이하러 그곳에 가고 싶구나.

벌써 10년 전 일인가? 우리나라이 20대와 30대의 갈림에서 마음 또한 우울한 시기에 신랑이라는 사람과 한바탕 풍파가 있을 후 너랑 아이 하나씩 데리고 무작정 강화 보문사로 떠났지. 후후... 우리보다도 아이들이 신이 나서 낙엽에서 뒹굴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들이랑 일심동체가 되어 신나게 자연 가을을 만끽했잖아. '시몬 너는 아느뇨...' 시도 읊어 가면서. 그땐 감성이 풍부한 시인도 부럽지 않았었지.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염전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둘러보다가 국산 소금이라고 2자루씩이나 트렁크에 담아 오느라고 힘깨나 썼지.



친구야, 지금 사십 고지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의 여유를 가져보고 싶구나.

가자. 이 가을에 신랑과 아이들을 벗어나서 우리만 떠나자.

이화옥 (계양구 작전1동)

난생처음 가을 여행 그리고...

엄한 아버지 그늘에서 여행이라고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내게 같은 하숙집에 사는 선배가 설악산에 가자고 했을 때 첫 경험에 대한 설레임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코펠이라는 것에 밥도 해 먹고, 산장에서 잠도 자 봤다. 모르는 사람들이 마룻바닥 가득히 제각각의 침낭 속에서 자고 있는 모습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기까지는 신났는데 그 다음날이 문제였다. 힘들어서 그랬는지 앵두같은 내 입술은 온데간데없고 더덕더덕 물집이 부풀어 오르고 화끈거리기 시작하는데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선배 몰래 도망쳐오고도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고, 결국 내려올 땐 선배가 내 짐까지 다 들어줬다. 그 산행 뒤로 선배와 난 더욱 더 친해졌지만, 두 번 다시 산에 가지는 소릴 듣지는 못했다.

지금은 그 선배와 한 집에서 산지 벌써 9년이나 되는 중고참 부부가 되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 통에 결혼 후에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한다. 그때

의 그 설악산도 좋고, 아니면 난생처음 제주도 여행도 좋고. 이번엔 입술 부르트는데 바르는 연고도 챙겨가야지.

윤미숙 (연수구 동춘2동)



아줌마들의 화려한 외출

우연히 지역신문을 통해 전통혼례음식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비슷비슷한 연령대의 30명의 주부들이 모여 직접 실습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며 한달 가까이를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나중에도 모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친해졌죠. 이렇게 해서 결성된 우리 2조 아줌마들의 모임.



시월 어느날 우리는 인천대공원에서 만났죠. 자그마한 배낭 속에 각자 김밥과 음료수, 과일까지 싸들고 여학교 때 소풍가는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는 젊어졌다, 예뻐졌다 칭찬까지 마음껏 하고요.

인천으로 이사온지 일년밖에 되지 않았던 나는 도심속에 이런 큰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공원은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으나 너무 예쁘다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고 풍광이 좋았어요. 떨어진 은행알도 줍고, 너른 코스모스 발도 거닐어 보고, 꽃이 진 메밀밭을 보니 하얀 꽃이 피었을 때 진작 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어요.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줌마들의 소풍은 끝이 났지만 당분간 마음속에 담온 빨간 단풍나무가 눈에 어른거릴 거예요.

조미수 (서구 검암동)

자연을 배운 황조롱이 대회

작년 10월 이맘때 쯤, 우리 가족은 엄마가 신청한 '월미산 황조롱이 가족 대회'에 참가했다. 시원한 바람도 쐬고, 산도 오르고...

나무탐으로 선택된 우리 가족은 산을 오르며 자연에 대한 문제도 풀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산과 나무에 대해서 배웠다. 치자물로 손수건 물들이기도 하고, 새끼도 꼬는 짚풀공예를 배우고, 찰흙피리 만드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정상에 올랐을 때는 "야호!" 하고 마음껏 소리치고 가슴을 활짝 열었다. 손톱만 큼 작아 보이는 아파트와 빌딩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영종대교를 배경으로 가족사진도 찍었다.

내가 물들인 치자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월미산을 뛰어 다녔다. 맛있는 김밥을 먹으면서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산으로 나들이 나올 때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와 동생은 앞으로 더욱 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꼭 멀리 단풍구경을 가는 여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우리 인천에도 경치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구나 하고 느꼈다. 올해도 우리 가족은 황조롱이 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임다빈 (서구 가정2동)

떠나볼까요?

뒤뚱 뒤뚱. 지금 임신중인 동생과 제가 힘겨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소리입니다. 저는 2주 후면 다소 늦은 첫 아이를, 동생은 몇 달 뒤 둘째를 분담니다. 그러다 보니 늘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목욕탕을 갔다가 시내를 조금 벗어나 가을을 한번 느껴

보고자 야외에서 차를 한 잔 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도중 차창 밖으로 보이는 추수가 덜된 누런 벌판과 바람결에 춤을 추는 코스모스 등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도 가을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향기 가득한 차를 마주하며 고즈넉한 곳에서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찻잔 속에 비치는 단풍이며 아름답리 밤나무는 어느새 가을을 닮아 있었습니다. 멀리 가을여행을 떠난 것보다도 더 가을 속 깊이 와 있는 것 같아 저희 자매는 가을 속 풍경을 하나하나 두 눈 가득히 담아 보았고 짧지만 잠깐 일상을 벗어나 가을 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을 즐기러 떠나볼까요?

우진영 (서구 왕길동)



가야산을 오르며

가야산을 오르는 입구 백운매표소 앞에 내려서 본 산 정상은 햇볕 좋은 가을 날처럼 아늑했다. 우리 산악회 일행은 오랜만에 가족동반의 가을 산행을 시작했다.

가을 가족 산행에서 뒤처지는 막내딸을 뒤로하고 단풍에 취해 상왕봉 쪽 높은 곳을 오르니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나무들이 흔들렸

다. 산행에서의 추억을 남기려고 바람을 무릅쓰고 키 큰 나무들의 가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으며, 정상에 올라갔다. 우리 막내 딸은 초행길인데다 비바람때문에 정상까지 못가고 일찍 하산했다고 한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난 막내는 "미끄럽고 강풍마저 불어서 엄마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간담이 서늘했어요"라고 말했다.

모녀간의 사랑과 화목한 모습을 확인하게 해준 가야산. 그리하여 우리 가족의 화목한 삶은 활력을 더하리라.

강현숙 (연수구 연수3동)

되었다.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시고, 언니 오빠들은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나도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지금부터 10년 전 일인데, 아버지께서는 단풍이 제일 곱게 물든다는 내장산에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셨던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 나, 그리고 동생들은 전북 남원에 있는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가게 되었다. 단풍들도 많았지만,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어머니가 싸 오신 점심을 먹고 집에서 가져온 카메라로 가족사진을 찍었다.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서 양복을 입은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가을 소풍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그게 우리 가족의 가을 소풍이었다. 아버지는 작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멋진 가을 소풍을 떠나고 싶다.

옛날 가족 소풍을 갔던 그날처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한인순 (부평구 산곡1동)



다음 달 테마는 ...

다음달은 그동안 자유주제로 보내주신 글을 엄선해서 게재합니다. 기억에 남을 추억의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황금들판에서 메뚜기 잡기

늦은 가을...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뭔가 색다른 가을여행을 선물하고 싶어 양평 국수리 들녘에서 메뚜기 잡기 겸 지역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여행이 됐을 거예요.
홍금숙 (계양구 용종동)

낙엽이 우수수

언니 무슨 낙엽이 좋아? 오빠는 무슨 색 낙엽이 좋아? 하다가 우리는 귀여운 포즈를 취하며 한 장의 사진을 찍었죠. 어디서 찍었나요? 인천 석남동에 자리잡고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이단비 (서구 석남1동)



허수아비와 함께한 아침고요 수목원

가을엔 뭐니뭐니 해도 허수아비 아닐까요? 허수아비와 함께 한 우리집 두 녀석의 멋진 모습을 찰칵...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 수목원입니다)
태진선 (남구 주안8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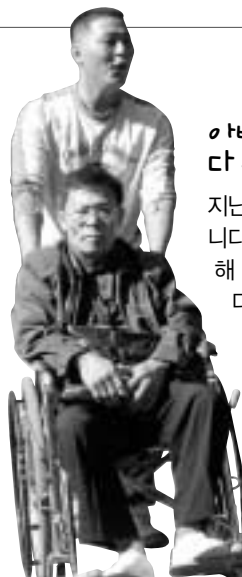
어머님의 가을여행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빛바랜 사진 한 장. 바로 우리 어머님의 젊은 시절 친구들과 가을 단풍 여행길에서 찍으신 거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 쓸쓸하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커다란 대들보가 되어주시는 어머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어머님)
오명기 (강화군 교동면)



아버지, 다음엔 걸어서 가 볼까요~

지난 일요일에 용인 에버랜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후 벌써 몇달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아버지를 특별외출 신청까지 해서 어렵게 다녀온 여행입니다. 하루내 휠체어를 밀고 언덕을 오르내렸지만 힘들지 않더군요. 이렇게라도 아버지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많은 힘이 되거든요. 여기서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하루빨리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다음 여행갈때 휠체어없이 가벼운 걸음으로 마음껏 구경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종수 ()



누가누가 잘하나

3년전 천마산으로 놀러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낙엽지던 장소에서 잠시 장기자랑을 했었네요. 누가누가 잘하나. 정겹던 여행이었습시다. 잠시 앨범을 쳐다보게 되네요.
이정광 (남구 관교동)



가야산에서

1994년 11월 가야산에 올랐을 때입니다. 해인사를 거쳐 가야산으로...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네요. 회사 첫 입사 후의 산행이라 더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늦은 가을이라 몹시도 추웠던 기억도 납니다.
이정화 (남구 주안5동)



백담사 가족여행

지난 9월 온 가족이 백담사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백담사 절까지 도보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먼 거리라 아이들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면 어떡하나 은근히 걱정도 했는데 의외로 씩씩하게 잘 걸어가더라고요. 산도 푸르고 물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너무 일찍 간 탓에 단풍구경을 못한 것이랍니다.
김금순 (남구 주안2동)

시댁식구와 가을여행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오랫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얼마만의 여행이었던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죠?
최정숙 (남구 주안8동)



설악산에서

멋들어진 산세와 곱게 물든 단풍이 제 맛인 설악산을 다녀왔네요. 오랜만의 산행이라 힘들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산세와 풍경에 지치는 줄도 모르고 다녀왔습니다. 역시 가을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입니다.
이기수 (부평구 부평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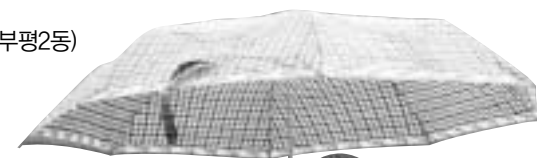
가을여행은 역시 가을 소풍

여기는 서울랜드~ 가을여행중 제일 기억 남는건 친구들과 가는 가을 소풍이죠! 이 우정 영원하~~
한지만 (부평구 삼산동)



가을보다 더 예쁜 아이들

가을햇살 가득한 오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른 옥구공원 정상에서 추억으로 남길 가족사진 한컷. 찰칵
나상만 (남구 주안8동)



밤다래 갔다가

할아버지와 산에 가서 밤을 따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낭패를 볼 뻔 했지만 가지고 간 우산으로 비를 피하고 있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밤 그만 따고 비 피하세요~~
전재은 (계양구 오류동)



2004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004년도 건강검진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조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 :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번, 사무직은 2년에 한번, 피부양자는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특정암 검사 : 2004년도 검진대상자 중 희망자(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특정암 검사는 본인이 50% 부담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강연회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의 개선을 위하여 본 수련관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하시는 특강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참가비는 따로 없습니다.

- 주제 :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일시 : 11월 13일(오후 2~4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5층 대공연장
- 내용 : 최원영 박사 초빙. 자녀의 진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또는 수련관 내방

문의 _ 동구 청소년수련관 (777-7942~4)

인천의료원 무료 검진

인천의료원에서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질병예방에 대한 보건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제고코자 시민봉사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 일시 : 11월 8일~12일 오전 9시~오후 4시
- 검사와 : 당뇨검사(내과1과)
- 검진항목 : 혈압, 소변검사, FBS(공복시 혈당), PP2(식후2시간혈당)
- 준비사항 : 공복으로 방문. 주민등록증 지참

중소산업체 에너지관리 무료진단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에너지사용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절한 에너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관리 무료진단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에너지관리 무료진단을 통해 기업은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제품 생산원가가 절감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에너지 수입감소로 외화가 절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 경영의 측면도 고려 가능합니다.

진단의 내용은 열발생설비, 열사용설비 열정산 및 성능분석/설비별, 공정별 에너지 사용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제시/우수절약설비 투자경제성 제시 및 에너지관리자 현장기술지도 등입니다.

무료진단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체의 경우 연료사용량 200~5,000toe/연 미만(열진단), 전력사용량 800~20,000MWh/연 미만(전기진단)이어야 하며 건물은 연료사용량 40~1,000toe/연 미만, 전력사용량 160~4,000MWh/연 미만 입니다.

단 일정 수의 업체만 무료진단이 가능해 신청 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나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라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후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과 판단, 조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진단문의 및 신청 _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사 (420-0711~5)

인천시 문화상 선정



사진 왼쪽부터 서동익씨(문학) 부부, 홍윤표씨(미술) 부부, 안상수 인천시장, 신영은 시의회부의장, 안선균씨(공연예술) 부부, 강재성씨(체육) 부부

우리는 작가 서동익씨 등 4명을 올해의 ‘인천시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지난달 20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문학분야에서는 인천일보에 북한지역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인구의 고향’을 2년간 연재한 작가 서동익(59)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장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미술분야에서는 향토작가 홍윤표(59)씨, 공연예술분야에서는 향토국악인 안선균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고 강재성(60) 경인교육대학 교수는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미술교사 출신의 홍씨는 30여년간 인천에서 211회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문학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서 지회장은 19편의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각각 인천미술·문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공연예술분야의 안선균씨는 200여회의 국내·외 공연활동을 펼쳐왔으며 강재성 교수는 대학교수들과 함께 인천스포츠아카데미 학회를 발족, 체육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문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30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문의 _ 인천의료원 내과1(580-6023),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580-6478, 6651~5)

인하대병원 뇌졸중 무료건강공개강좌

- 일시 : 11월 30일(화) 15:00 ~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뇌졸중의 재발
- 강사 : 재활의학과 정한영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료 주차권을 배부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890-2640~2)

인천사랑 향토교양 경진대회 열립니다

연수문화원에서는 인천에 살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제3회 인천사랑 향토교양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11월 6일 (토) 14:00 ~ 18:00
- 장소 : 원인재
- 대회종목 : 3개 부문(백일장, 사생, 경시)
- 참가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초,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 (초등학생은 4학년이상)
- 신청서접수
-기간 : 10월 15일 ~ 11월 3일까지
-장소 : 연수문화원 사무국(연수구청 7층)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연수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참가비 : 없음

문의 _ 연수문화원 사무국(821-6229, 6239 www.yeonsu.or.kr)

향토사랑 문화기행 열립니다

연수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발전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토사랑문화기행을 엽니다.

- 일시 : 11월 13일·20일·27일·12월 4일 매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동곡재, 척전마을, 동막어촌계,

미추홀문화회관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이 순수 예술의 저변화와 인천시민의 문화예술의 고취를 위해 미술, 무용, 악기, 국악, 공예 등 다양하고 특성 있는 전통 및 순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드리고자 제14기 겨울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또한 영세민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마련했습니다

- 접수기간 : 11월 1일 ~ 12월 11일 •강좌기간 : 12월 6일 ~ 2005년 2월 26일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 인천여고)
- 무료 특별 기획 강좌 (3개월 강의) : 단전호흡, 인천 고전 무용, 겨울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커피 만들기, 홈패션을 이용한 아기용품, 전통한지공예, 성악교실, 멋지고 신나는 요들나라(발성반), 서예교실, 문인화, 어린이 서예교실(한문/한글), 어린이 풍물,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사진촬영교실, 일어 회화, 중국어 회화, 니하오! 어린이 중국어 회화
- 정규 유료 강좌 (3개월 30,000원 ~ 90,000원) : 방학특강(스피치 리더십교실 외), 생활조형 공예(칼라믹스 외), 섬유패션 공예(홈패션 외), 한지/종이 공예(한지그림공예 외), 화훼(토피어리 외), 미술(영재미술아카데미 외), 무용(한국무용 외), 노래/악기/국악(동요, 성악 외), 어학/연극(일어회화 외), 건강/스포츠/교양(다이어트건강요가 외), 창의력/학습개발(프뢰벨 가베(은물) 외)

문의 _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연수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연수문화원에서는 겨울학기를 맞이하여 보다 유익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개강합니다.


- 강좌기간 : 12월 1일(수) ~ 2005년 2월 28일(월) 3개월
- 접수기간 : 11월 15일(월) 10:00 ~ 17:00
- 접수장소 : 연수문화원 사무국 (연수구청 7층)
- 대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강좌
 - 영유아 문화강좌 : 창의력강좌 (음악놀이를 통한 EQ개발 외), 창작강좌(베이비 레고덕타 외), 미술강좌 (정대식아동심리미술 외), 발표력강좌 (동화구연 외)
 - 어린이문화강좌 : 발표력 강좌 (오선숙선생님과 함께 하는 어린이노래극교실 외), 창의력탐구강좌(채색과 만나는 찰흙놀이 외), 음악강좌(뮤지컬을 통한 오감교육 외) 어학강좌 (중국어회화 외), 미술강좌(어린이미술회화 외), 논술강좌(청소년 독서토론 외)
 - 성인문화강좌 : 자녀지도강좌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는 생일파티 풍선), 스포츠강좌 (포켓볼교실 외), 어학강좌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영어 외), 음악강좌 (플룙 외), 생활강좌(부동산재테크 외), 전통예술강좌 (사물놀이 외), 공예강좌(생활가구 만들기 외), 미술강좌(유화 외)
 - 연수구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 ▷ 강좌기간 : 2004년 12월 6일 ~ 2005년 1월 27일(월·수, 화·목)
 - ▷ 강좌명 : 엑셀기초, 컴퓨터기초(윈도우·인터넷), 어르신을 위한 컴퓨터 첫걸음, 한글2002 기초, 홈페이지기초, 어르신을 위한 한글문서 작성, 파워포인트, 알기쉽게 배우는 포토샵 기초

문의 _ 연수문화원 821-6229, 821-6239 (www.yeonsu.or.kr)

- 외국인 묘지 등
 - 참가대상 : 연수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 주민
 - 신청기간 : 10월 18일(월)부터 매회 40명 마감시까지
 - 참가비 : 없음
- 문의 _ 연수문화원 사무국(821-6229, 6239 www.yeonsu.or.kr)

- 제4회 인천문화사랑 회원축제**
-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고 1년여 동안 운영해온 문화교실을 결산하고 그동안 열심히 배워온 솜씨와 실력을 펼쳐 보이는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합니다.
- 축제 일시 : 12월 3일(금) ~ 4일(토)
 - 장소 : 전시회 - 인천예총 문화회관 전시실 (수봉공원) / 발표회 - 인천예총 문화회관 소극장 (수봉공원)
 - 행사일정
 - 전시 한마당
 - 일시 : 12월 3일 ~ 4일
 - 오전 11:00 ~ 오후 6:00
 - 전시회 : 생활공예, 미술, 사진촬영교실, 어린이 시창작, 레고덕타, 가베
 -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12월 4일 오후 3:30
 - 발표회 : 무용, 악기·노래, 국악, 영어노래발표, 동화구연, 마임
- 문의 _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사업 고민
좌~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컬러 기준)		
표4 (맨위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 (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관 20주년 근로자 문화축제

- 근로자 문화센터에서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근로자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한자리에 모아 발표하는 흥겨운 잔치마당을 개최합니다.
- 개막식 및 시상식 : 11월 10일(수) 18:00
 - 작품전시회 및 회고 사진전 : 11월 10일(수)~12일(금)
 - 축제공연
 - 일시 : 11월 10일(수) 19:00
 - 내용 : 초청공연(Musical Song, 뽀리댄스), 교육생 및 동호회 시범공연
 - 일일체험마당
 - 일시 : 11월 11일(목) 19:00~21:00
 - 내용 : 건강 발관리, 헤어미용, 가훈 써주기, 구슬공예, 생활도자기 만들기 등
 - 부대행사
 - 탁구대회 : 11월 2일(화) 19:00 센터 강당
 - 오픈하우스 : 11월 6일~7일 낙원아파트
 - 사랑의 바자회 : 11월 10일 ~ 12일 센터 104호
- 문의 _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578-5121, 578-6123)

공인중개사 무료 교육생 모집

- 인천부동산교육원에서는 이번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공인중개사 전 과정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신청대상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하며 10월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2004년 12월 1일 ~ 2005년 1월 29일(2개월)
 - 교육시간 : A반(10시~13시), B반(14시30분~17시30분), C반(19시~22시)
 - 준비물 : 사진1매, 등본1통, 접수비 35,000원, 교재비 별도
- 문의 _ 인천부동산교육원 (435-9908 간석오거리역 1번 출구 앞)

터미널시네마 〈꽃피는 봄이 오면〉〈쌈〉상영

-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10월 29일부터 한석규, 이은주 주연의 〈주홍글씨〉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주홍글씨〉는 스릴러적인 스타일과 멜로적인 소재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 새롭고 특별한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또 10월 22일부터는 〈쌈〉을 각각 상영합니다. 상영 프로그램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5백원, 학생 5천5백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화 폭에 담긴 인천 풍경 ⑰ | 이종구 〈산곡동·도화동의 봄〉



〈산곡동·도화동의 봄〉 195×320cm, 종이에 아크릴, 인쇄물 부착, 2003

이번에는 좀 색다른 풍경화이다. 도시 벽면에 부착된 갖가지 광고물들이 화가의 촉수를 자극했나보다. 이제 도시는 이미지와 광고의 범람으로 인하여 웬만한 자극이 아니면 시선을 끌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인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도심, 부도심 어디를 가나 유흥주점이나 사채광고 등이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제 부착광고는 도시 생활에서 하나의 환경이자 삶의 일부로 존재하며 시대의 단상을 기록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 것이다.

80년대 이후 우리시대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해 온 이종구 교수가 이러한 시대적 단상을 못 본 채 지나칠 리가 없다. 그와 그의 예술은 평범한 시골의 촌로들조차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시키지 않았던가! 그의 인문정신이 그 특유의 장인적 기질과 결합하면 사물이 실체가 되고 이는 곧 역사가 된다.

이 그림은 작년 가을 학교재화랑에서 있었던 ‘국토’라는 주제의 이종구 개인전에서 발표했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화가는 길거리의 부착광고물을 수습하여 오브제로 사용하고 좌우에 익명의 인물들(오른 쪽의 어린이는 화가 자신의 늦둥이 막내아들이다)을 배치함으로써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도시인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물이 공간이동을 통하여 미술작품이 되었다는 매체 미학적 관점 이전에 오늘날 도시적 삶의 여러 양태들, 이를테면 사회, 환경, 자연, 역사 등의 의미를 다시금 정의하게 만든다.

글 _ 이정모(인천대학교 겸임교수 / 미술평론가)